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4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초등학생 공동체 의식과 친사회적 행동  
증진을 위한 나눔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사 회 복 지 학 과

박 신 영

2015

초등학생 공동체 의식과 친사회적 행동  
증진을 위한 나눔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 년 12 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 회 복 지 학 과 박 신 영

# 박 신 영 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지도교수 전 종 설 \_\_\_\_\_

심사위원 양 옥 경 \_\_\_\_\_

정 익 중 \_\_\_\_\_

전 종 설 \_\_\_\_\_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목 차

I. 서론 .....	1
II. 이론적 배경 .....	4
A. 나눔교육의 정의 .....	4
B. 나눔교육에 대한 이해 .....	6
1. 나눔교육의 내용 .....	6
2. 나눔교육의 방법 .....	10
3. 나눔교육의 주체 .....	15
C. 나눔교육과 공동체 의식·친사회적 행동의 관계 .....	18
1. 나눔교육과 공동체 의식의 관계 .....	18
2. 나눔교육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 .....	23
III. 연구방법 .....	28
A. 나눔교육 프로그램 .....	28
1. 모델 프로그램 .....	28
2. 나눔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	31
B. 연구 문제 .....	37
C. 연구 대상 .....	38
D. 연구 설계 .....	39
E. 연구 절차 .....	40
F. 측정 도구 .....	41
G. 자료 분석 .....	43
IV. 연구결과 .....	44
A. 인구사회학적 특성 .....	44

B.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 동질성 비교 .....	46
1. 공동체 의식 사전 동질성 비교 .....	46
2. 친사회적 행동 사전 동질성 비교 .....	47
C. 나눔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	48
1. 집단별 공동체 의식의 변화 정도 .....	48
2. 집단별 친사회적 행동의 변화 정도 .....	52
<b>V. 결론 및 논의</b> .....	56
A. 요약 및 논의 .....	56
B. 연구의 함의 .....	60
C. 연구의 제한과 차후연구에 대한 제언 .....	64
<b>참고문헌</b> .....	65
<b>부록1. 프로그램 회기별 세부사항</b> .....	71
<b>부록2. 설문지</b> .....	76
<b>ABSTRACT</b> .....	81

# 표 목 차

<표 1> LTG의 나눔교육 표준안 .....	7
<표 2> 국내 나눔교육의 내용 .....	8
<표 3> 한국의 비영리기관별 나눔교육 내용 .....	9
<표 4> 한국의 비영리기관별 나눔교육 방법 .....	11
<표 5> 국내 비영리기관 나눔교육 주체 .....	16
<표 6> SSPP 프로그램의 구성 및 활동내용 .....	30
<표 7> 나눔교육의 구성내용 .....	36
<표 8> 연구 대상 인원 수 .....	38
<표 9>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연구 설계 .....	39
<표 10> 공동체 의식 검사의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	41
<표 11> 친사회적 행동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	42
<표 12>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45
<표 13>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공동체 의식 사전 동질성 비교 .....	46
<표 14>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친사회적 행동 사전 동질성 비교 .....	47
<표 15> 공동체 의식 사전 사후의 평균 및 표준편차 .....	48
<표 16> 공동체 의식에 대한 공분산 분석 결과 .....	49
<표 17> 공동체 의식 하위요인의 사전 사후 평균 및 표준편차 .....	50
<표 18> 공동체 의식 하위요인의 공분산 분석 결과 .....	51
<표 19> 친사회적 행동 사전 사후의 평균 및 표준편차 .....	52
<표 20>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	53
<표 21> 친사회적 행동 하위요인의 사전 사후 평균 및 표준편차 .....	54
<표 22> 친사회적 행동 하위요인의 공분산 분석 결과 .....	55

# 그 립 목 차

[그림 1] 집단별 공동체 의식의 사전 사후 평균 비교 .....	49
[그림 2] 집단별 친사회적 행동의 사전 사후 평균 비교 .....	53



## 논문개요\*

우리는 내가 아니면 모두가 경쟁 상대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변 사람 혹은 보이지 않는 상대를 대상으로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사람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회복되는 시점에 도래하였다.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가 무엇이고 그 속의 개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하는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나눔교육은 우리 아이들에게 공동체의 의미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알려주는 교육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낀 만큼 나눔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 형태에 대한 반응과 확산은 빨랐다. 그리고 현재 많은 국내의 학교와 비영리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초, 중, 고등학교 나눔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나눔교육이 짧은 시간 확대된 만큼 여전히 발전되어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국내의 나눔교육은 학생들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지역 사회에 대한 참여하는 부분이 부족하고, 아동들이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모델이 되며 가르침을 주는 부모와 교사에 대한 교육과 연계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의 나눔교육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하여 미국 나눔교육 방법을 참고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나눔교육을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과 친사회적 행동에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둔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 제, 나눔교육 프로그램은 아동들의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 제, 나눔교육 프로그램은 아동들의 친사회성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하여 미국 LearningtoGive(LTG)를 방문하고 담당자와

---

\*이 논문은 2014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 석박사 논문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관련 기관(League, generationOn)의 나눔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초안을 작성에 필요한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나눔교육을 시행하게 될 학급의 담임교사와 아름다운재단 나눔교육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국내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국내 나눔교육의 제한점을 보완하고 나눔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하여, 미국 나눔교육 방법인 Student Service and Philanthropy Project (SSPP)를 참고하여 5회기로 구성하였다. 나눔교육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과정은 학생들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점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평가하고 성찰하는 단계로 구성되었다. 또한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나눔교육의 내용을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교과목 연계와 가정안내문을 각 회기별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9학급 중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하는 2학급을 편의표집 하였다. 그리고 나눔교육으로 프로젝트 학습을 시행하는 학급을 실험집단으로 일반 교과 내용으로 진행하는 비교집단 1학급을 편의표집 하였다. 각 집단별로 전수조사를 통해 총 47명의 연구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효과성 차이 검증을 위하여 총 4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사전과 사후에 각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나눔교육 프로그램 5회기를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고, 비교집단은 담당 교사에 의해 일반적인 수업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측정도구는 공동체 의식 척도와 친사회적 행동 척도로 먼저, 공동체 의식 척도는 우남희, 이연섭, 정진경, 정병호, 이기범 (2001)의 21세기 한국 사회의 공동체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공동체 교육에서 개발한 것을 조성수(2007)에서 초등학생 수준으로 수정하여 신뢰도가 검증된 척도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친사회적 행동 척도는 Eisenberg(1982)가 개발한 이타성 자기보고식 검사로, 김수연(1995)에 의해 번안되고, 이경은(2007)에서 초등학생의 나눔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에서 활용된 것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공분산 분석(ANCOVA)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전체 공동체 의식 점수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하위요인 중 자율성과 공공의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본 프로그램이 공동체 의식 중 자율성과 공공의식에 영향이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친사회적 행동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점수를 통제한 사후점수의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나눔교육 프로그램이 아동들의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하위요인 중 도움 주기, 친절하기, 공감하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검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의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직접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에 참여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나눔과 공동체에 대해 스스로 깨닫고, 실제로 학생들의 의식과 행동에 변화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리고 본 내용과 유사한 교과내용과 연계하여 진행하여 수업내용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앞으로 교과내용과 함께 나눔교육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부모에게 전달하고 가정 내에서 부모와 함께 공동체와 나눔에 대해 활동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가 되었을 것이다. 앞으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좀 더 체계적인 연계를 통한 나눔교육을 진행할 때 사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 서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하에 경쟁이 익숙해진 사람들은 남들보다 먼저, 그리고 잘하기 위해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특히, 대학진학을 위한 학업위주의 교육과 미디어를 통한 물질주의 사고관의 확산 그리고 경쟁적인 학업 분위기 속에서 개인적인 학습이 익숙해진 아이들은 점차 공동체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더욱이 인터넷과 스마트 폰의 발달로 인해 친구를 만나지 않아도 혼자 놀 수 있는 환경이 허락되면서 더욱 많은 학생들이 공동체 의식을 발달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라고 있다(강철희, 김미옥, 이종은, 이경은, 2007). 학생들은 경쟁적인 입시 현장에서 상대를 이기는 것에 혈안이 되어, 진정한 목적의 공부가 무엇인지 모르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과 협동심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 실제로 '남과 더불어 사는 능력'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결과를 통해, 그동안 대한민국의 교육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성, 가치와 행동 대한 교육이 관심이 실천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고정리, 2014에서 재인용). 다시 말해, 그동안의 교육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였고 그로 인한 심리·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서 공동체 의식과 나눔에 대한 가치관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최근 나눔교육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강철희 외, 2007). 나눔교육이란, 나눔에 대한 사실, 가치, 그리고 실천을 가르침으로 아동들에게 협력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타심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켜 좋은 시민으로 성장시키는데 목적을 둔 교육이다(Agard, 2002; Bjorhovde, 2002). 이의 효과성을 검증한 국내·외 여러 연구들은 나눔교육을 통해 이타성 혹은 친사회적 행동이 발달하며 친절, 이해심, 책임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나눔교육은 공동체 의식과 친사회적 행동 증진에 효과적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성장시키는데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선희, 2006; 김동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08; 이경은, 강철희, 2007; 위지혜, 2014; ; Spaide, 1995; Ryan & Bohlin, 1998).

국내 나눔교육은 기부, 자원봉사가 강조되면서, 함께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2003년 유니세프, 아름다운재단을 비롯한 비영리기관을 통하여 나눔교육이 시작되었고 현재도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아름다운 가게, 어린이 재단 등 국내 비영리기관을 통해 계속해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는(2009) 학업위주로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기부 및 봉사활동을 강조하고 나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하여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창의적인 재량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국내 나눔교육은 많은 비영리기관의 관심과 집중 하에 학교의 정규시간에 진행되고 있으며, 나눔교육을 정규 교과목으로 포함한다는 나눔 기본법이 입법 예고 상황에 있어(보건복지공고 제 2012 -668호, 2012), 앞으로 나눔교육의 확대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내의 나눔교육 프로그램의 상당수가 비영리기관에 의해 개발된 다양한 구성의 프로그램과 강사를 양성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아동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직접적인 가르침과 모델이 될 수 있는 교사와 부모의 영향력(Bekker, 2005; Janoski & Wilson, 1995; McLellan & Youniss, 2003)이 제한될 수 있다. 그리고 나눔교육이 지식전달 차원의 강의식으로 전달되거나 혹은 활동들이 대부분 교실 혹은 학교 내에서 진행되고 있어, 아동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나눔을 실천하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한다(최서연, 2012).

국내 나눔교육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제 미국의 여러 비영리기관과 학교에서 활용되어 그 효과가 입증된 모델인 SSPP을 참고하고자 한다. 이 모델은 미국 뉴욕 주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시행되었고, 현재까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성공적인 사례가 있다. 그리고 학생들은 학업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 공동체 의식 및 사회의 구조에 대한 인식이 증진되었고, 지역사회에 참여 수준이 향상되었다는 효과가 검증되었다(<http://www.learningtogive.com>).

이와 같은 효과를 가진 모델의 내용 중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재단의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젝트 실천 및 평가부분을 참고하여 본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의 이타성 혹은 친사회적 행동과 공동체 의식 발달에 직접적인 가르침을 제공하고 롤모델이 되는 교사와 부모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였다(강철희 외, 2007; 아름다운재단, 2009; Bekker, 2005; Bently & Nissan, 1996; Janoski & Wilson, 1995; McLellan & Youniss,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에 깨닫고, 그 속에 나눔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교육 방법으로 학생들이 교과과정에서 학습한 내용과 접목하여 학생들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Service-Learning을 활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눔교육 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사와 가정에서 일관성 있게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교사와의 연계 지점으로 사회교과목 함께 진행하였다. 그리고 당일의 수업내용을 가정에서 함께 복습하고 실천해볼 수 있도록 나눔교육 가정용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구성한 나눔교육 프로그램이 실제로 국내 초등학생들의 공동체 의식과 친사회적 행동에 효과가 있는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시도는 나눔교육 활동이 지역사회의 문제로 나아가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향후 나눔교육 프로그램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A. 나눔교육의 정의

나눔교육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나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박애 혹은 자선으로 번역되는 Philanthropy를 나눔의 의미로 볼 수 있을 지에 대한 많은 의견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나눔으로 번역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나눔이 뜻하는 사전적인 정의는, 주는 것 혹은 동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선(Charity)을 베풀거나 또는 인간애를 바탕으로 하는 박애활동(Philanthropy)이다(이경은, 2007). 일반적으로 나눔은 불우한 이웃을 위한 기부와 봉사활동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Bentley와 Nissan, 1996). 하지만 나눔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을 좀 더 넓게 이해해보면, 우리사회의 취약한 계층을 돕는 일 이상의 활동을 넘어서 전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일으키고 변화시키는 것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Payton & Moody, 2008). 또한, 미국의 나눔교육 개발과 배포를 담당하고 있는 LTG는 기부, 봉사 그리고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으로서의 자발적인 참여로서 나눔(Philanthropy)을 정의하고 있으며(Agard, 2002), 이경은(2007)도 공익적 목적을 지닌 자발적인 기부와 자원봉사 등의 의도적인 과정으로 보았다. 정리하면, 나눔의 인류애를 강조할수록 나눔을 좁은 의미에서 이해하게 되고, 공공의 가치를 내포할수록 좀 더 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이종은, 2009). 최근에 나눔의 의미를 받는 이의 입장과 조건을 고려하는 것으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들과의 소통이라고 보는 시각도 나타나고 있어(전성실, 2013), 나눔에 대한 의미가 자선적인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의 활동을 넘어서 공익을 위한 의미 있는 활동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나눔의 정의와 함께 나눔교육의 의미를 이해하면, 나눔교육을 나눔 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

고 있다. 먼저, 이경은과 강철희(2007)은 나눔교육은 나눔의 가치, 의미를 아동들이 내재화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나눔을 정의한 사람들은 나눔을 실천하는 것 이상이라고 보았다. 즉,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가지고 또한 맡은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하면서 시민으로서 역할을 연습하는 교육 과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맹지나, 2010; Bjorhovde, 2002). 아름다운재단(2005)도 나눔교육을 개인들이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 혹은 책임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최근에는 나눔을 소통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법을 찾아가는 것을 나눔교육으로 정의하면서 하나의 인성 교육적 차원으로 이해하기도 한다(전성실, 2013).

이상 언급된 선행연구들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서는 나눔을 타인 혹은 사회에 관심과 기대감을 가지고 물질적으로 또는 비물질적인 행동을 취하는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나눔교육을 단순히 자선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의 덕목인 공동체 의식과 친사회적 가치관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 체험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 B. 나눔교육의 이해

### 1. 나눔교육의 내용

국내의 나눔교육에 많은 영향을 준 Bjorhovde(2002)는 나눔교육(Phailanthropy Education)의 필수적인 4가지 개념인 사실적 개념, 동기적 개념, 절차적 개념 그리고 개인적 발달 개념을 정리하였다.

먼저, 사실적 개념은 나눔의 정의와 사회 내에서 나눔의 역사와 위치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나눔의 중요성과 나눔이 가진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다(Bjorhovde, 2002). 이는 기부와 자원봉사 활동이 사회와 개인에게 의미 있는 행동 혹은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위지혜, 2014). 두 번째 동기적 개념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나눔을 실천해야 함을 가르치는 것으로 나눔을 실천함에 있어 소득 혹은 재산은 그리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모두가 다른 사람을 돕고 위할 수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들에게 사소한 실천을 통해 개인과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이다. 그리고 세 번째, 절차적 개념은 각 개인들의 기부나 자원봉사 활동의 나눔 활동이 전달되는 과정을 알려주는 것이다. 지역의 비영리기관의 구조와 역할 등을 설명하는 것으로(위지혜, 2014), 내가 낸 기부금액이 어떻게 전달되는지의 절차를 알려주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개인 발달적 개념은 타인을 돕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 대한 가치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인, 의사결정, 윤리적 책임감 등을 습득하는 것에 대해 알려주는 개념이다.

Bjorhovde(2002)는 위와 같은 4가지 개념을 통해 아동들은 나눔의 의미와 과정에 대해서 습득하게 되며 이를 통해 실제로 나눔을 실천하는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한다고 설명하면서 위의 개념들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LTG와 국내의 아름다운재단을 비롯한 많은 연구들에서 위와 같은 개념이 활용되었다(Agard,

2002; 권선희, 2006; 맹지나, 2010; 이경은, 강철희, 2007; 위지혜, 201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LTG는 Bjorhovde(2002)의 개념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교육과정 안에서 중요한 개념을 잘 전달하기 위하여 4가지의 주제의 나눔교육 표준안을 구성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나눔에 대한 정의, 둘째, 나눔을 통한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역할, 셋째,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비영리기관의 역할 그리고 넷 째, 개인의 책임으로서의 봉사활동이다. 그리고 다음의 목표는 초, 중, 고등학생의 수준에 맞게 나누어져 있으며 웹사이트를 통해 교사가 바로 사용한 수준의 세부적인 교안이 풍부하게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다음의 내용은 <표 1>로 정리하였다.

<표 1> LTG의 나눔교육 표준안

중심개념	교육내용
나눔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눔의 정의</li> <li>▪ 정부, 기업의 역할과 나눔</li> <li>▪ 비영리 영역에 있는 단체의 이름과 종류</li> <li>▪ 비영리 단체의 운영 특징</li> <li>▪ 재단의 역할</li> <li>▪ 나눔에서 가족의 역할</li> </ul>
나눔과 시민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을 위한 시민 개인의 행동</li> <li>▪ 다양한 문화</li> <li>▪ 나눔과 경제</li> <li>▪ 나눔과 지리</li> <li>▪ 나눔과 정부</li> <li>▪ 나눔과 역사</li> <li>▪ 시민 참여 기술</li> </ul>
나눔과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눔에 대한 이론, 개념에 대한 설명</li> <li>▪ 비영리사업에서의 경력 기회</li> </ul>
자원봉사와 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욕구조사</li> <li>▪ 봉사와 학습</li> <li>▪ 봉사하기</li> <li>▪ 사적자원 모금하기</li> <li>▪ 봉사의 경험을 배움으로 통합하기</li> </ul>

참고: [http://learningtogive.org/philtthemes/all\\_phil.asp#IV](http://learningtogive.org/philtthemes/all_phil.asp#IV)

국내의 나눔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들은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권선희(2006)는 나눔의 정의와 방법, 필요성과 대상, 역사와 문화, 사례 및 참여 등의 내용을, 유아를 대상으로 한 맹지나(2010)는 나눔의 개념과 대상 그리고 필요성, 실천과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종은(2009)는 우리나라의 나눔교육의 내용이 나눔의 개념,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가치를 통해 사회를 이해는 것, 그리고 나눔 실천사례를 나누고 실제로 경험하는 것과 인성발달 적인 측면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정리하였다. 다음의 내용은 <표 2>로 정리하였다.

<표 2> 국내 나눔교육의 내용

구분	주제	구체적인 내용
1	개념에 대한 이해	자선적 기부 이해, 나눔의 정의 알기 등
2	시민사회 및 민주주의 가치 등 사회에 대한 이해	기부와 시민사회, 민주주의 가치, 비영리기관 이해, 사회 및 타인이해, 나눔의 필요성과 대상 알기 등
3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및 사례 접하기	자선적 기부와 개인, 롤모델 발굴, 자기 이해, 나눔의 역사 알기, 나눔 사례 등
4	실천 활동 경험하기	도움활동 실천, 참여하기
5	인성적 발달 훈련	인성발달훈련, 의사결정능력훈련 등

참고: 이종은(2009)

또한, 현재 국내 비영리기관의 나눔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종은(2009)이 언급한대로, 나눔의 개념과 이해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이 많은 비영리기관에서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굿네이버스, 아름다운재단, 월드비전 그리고 기아대책은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과 글로벌 이슈에 대한 개념과 참여 방법을 나눔교육의 내용으로 한다. 또한 유니세프는 의사결정 및 권리 교육을 포함하기도 한다. 다음의 내용은 <표 3>으로 정리하였다.

〈표 3〉 한국의 비영리기관별 나눔교육 내용

기관명	교육 내용
구세군	나눔이 필요한 사례실천사례 소개 및 실천방법 찾기
굿네이버스	지구촌 문제 대한 지식습득, 가치형성, 나눔 실천
기아대책	글로벌 시민 이해, 빈곤 체험, 모금실천
사랑의 열매	나눔의 개념 이해, 자기이해, 타인 이해, 실천
어린이재단	나눔과 인성교육
월드 비전	세계시민, 아동노동, 물 부족, 아동보건에 대한 개념전달 및 실천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는 나눔(모금)프로그램의 의의, 활용법, 심화 학습
아름다운가게	나눔, 재사용에 대한 의미전달 공정무역 및 빈곤에 대한 개념전달 및 실천 활동
아름다운재단	나눔의 정의, 종류 및 방법, 필요성과 사례, 참여 학습, 관계(자신, 타인, 지구촌)에 대한 이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나눔의 의미, 의사결정능력 함양, 어린이 권리교육

참고: 나눔국민운동본부(2013), 최서연(2012)

## 2. 나눔교육의 방법

Bjorhovde(2002)는 나눔교육의 방법으로 토론과 작문의 인지적 기법,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관찰하게 하는 모델링 기법, 실제로 나눔에 참여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인지적 방법으로 신문, 동화 등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나누는 토론, 배운 내용을 자신의 실제 삶에 적용시켜 보는 성찰의 과정 그리고 어른들의 나눔 활동을 보고 듣는 것을 통해 배우게 되는 모델링 기법이 있다. 그리고 나눔을 실천한 경험이나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한 사람에 대한 자서전을 쓰는 방법과 나눔이 필요한 사람들의 상황과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 나눔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정서적 탐구가 있다. 경험적 방법으로는 나눔 활동과 유사한 의미의 게임과 역할극 활동들이 있으며, 진행하는 그룹 프로젝트나 학급 혹은 클럽모임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로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실제로 자신의 돈 혹은 자원을 기부를 해보는 방법이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Bently와 Nissan(1996)과 Bremmer(1996)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교육 내용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LTG의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Agard, 2002). 또한 LTG의 영향을 받은 아름다운재단(2009)의 나눔교육 교사연구회에서도 인지적 방법의 읽기, 생각하기, 토론하기, 실제 사례 살펴보기와 경험적 방법으로 게임, 역할놀이, 봉사활동, 기부 또는 기증 등을 활용하였다. 이외의 국내의 다양한 연구들이 위의 방법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효과성을 검증하였다(맹지나, 2010; 이경은, 강철희, 2007; 위지혜, 2014).

국내 나눔교육을 진행하는 비영리기관들의 방법을 살펴보면, 주로 피피티 강의, 나눔 관련 영상 및 동화 시청, 게임 및 체험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눔 문화 체험 장소인 나눔 문화관 운영 및 기관방문 프로그램인 나눔행복버스, 그리고 청소년 나눔 축제는 학급 밖으로 나가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다음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국내의 비영리기관별 나눔교육 방법

기관명	교육 방법
구세군	PPT 강의, 페이지 작성
굿네이버스	미디어 교육자료, 나눔 대사 임명, 희망편지쓰기
기아대책	오프라인 강의, 체험 활동
	온라인 사전교육 나눔 축제
사랑의열매	교재배포, 오프라인 강의, 나눔 문화관 운영, 1318 캠프, 차량 이동 단체 방문 교육(나눔행복버스)
어린이재단	영상시청, 학부모 기부교육, 나눔 공모전, 나눔 리더 봉사캠프
월드 비전	오프라인 강의, 토론, 체험학습, 교사대상 교원연수
	활동학습 전 소양교육
아름다운가게	오프라인 강의, 캠페인 및 바자회
아름다운재단	가정용 나눔교육 키트 개발 배포, 나눔 동화 발간, 명사 특강, 나눔 클럽, 나눔 캠프, 교사연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차량 이동 단체 방문 교육(나눔행복버스), 교재 개발 및 배포, 나눔 활동 공모전, 나눔 통장

참고: 나눔국민운동본부(2013)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국내 나눔교육의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 나눔교육 프로그램 중 실제 지역의 문제에 참여하여 나눔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 나눔교육 방법은 학교 내 진행할 수 있는 활동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에 실제 문제에 대하여 접하고 아동들이 참여해볼 수 있는 활동이 부족하다. 국내 나눔교육을 해외와 비교한 최서연(2012)도 한국의 나눔교육 방법은 실제 지역사회에서 모금이나 봉사를 하는 방법 보다 놀이 혹은 장터 프로그램이 많다고 분석하였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처럼 아동들이 실제로 기부나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아동의 발달과 사회적 변화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증

명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다(Conrad & Hedin, 1989; Eyler & Giles, 1999; Moely, McFarland, Miron, Merer, & Ilustre, 2002; Simons & Cleary, 2006). 즉, 지역사회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기회를 제공을 통해 아동들은 나눔의 의미와 가치들을 실현해보고 적용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많은 나눔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실제 연구를 통해서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났다(Conrad & Hedin, 1989; Eyler & Giles, 1999; Olberding, 2012). 그리고 지역사회의 실제 문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실제로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한 학생들은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을 지속할 경향이 높다는 결과가 있다(Olberding, 2012). 또한,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사회의 구조에 대한 인식이 증진되었고 지역사회에 참여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한다(Eyler & Giles, 1999).

위와 같은 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국내 나눔교육 프로그램이 좀 더 학생들의 지역에 실제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에 적합한 방법이 우리나라에서 봉사학습으로 번역되는 Service-Learning이 될 것이다.

이는 사실 국내 나눔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친 미국 LTG이 나눔교육의 방법으로 Service-Learning을 강조하고 있는 방법으로, 학교 교과과정과 자신이 속한 지역에 대한 기부 혹은 봉사를 결합한 교육방법이다.

즉, 학생들이 자신들이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실제 지역사회에 나눔 활동을 기획과 진행 그리고 평가하는 과정이다. Service-Learning의 이론과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실 내에 진행되는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에 나아가 역동을 느끼면서 학습내용을 활용해 보는 방법인 Service-Learning은 교육학자 John Dewey, David Kolb 그리고 Paulo Freire의 이론에 근거를 둔다(Whitley, 2014). 그리고 미국은 1990년대부터 Service-Learning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하여 많은 지원을 하였고 현재 미국 전역에 걸쳐 Service-Learning을 강조하고 있다(Whitley, 2014).

국내에서도 1994년 이후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와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학

교와 지역사회의 연계가 강조되면서 Service-Learning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Service-Learning을 나눔교육으로 혹은 봉사활동만 강조되어 교과목과 연계되어 진행되지 않아 진정한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최정순, 2012). 그리고 Service-Learning은 청소년과 성인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제한적이다(최정순, 2012). 하지만, Service-Learning은 학생들 스스로 지역사회에 참여가 필요한 나눔교육의 방법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내용으로 본 프로그램에서 활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Service-Learning의 핵심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RMC Research Cooperation(2009)는 Service-Learning의 핵심요소가 조사, 계획과 준비, 활동, 성찰, 결과에 대한 발표 및 수료라고 보았다. 그리고 Kaye(20010)도 Service-Learnig의 단계를 5단계로 제시하였다. 그 순서는 발견(Investigation)과 준비(Preparation), 계획(Planning)과 행동(Action) 그리고 반영(Reflection) 시연(Demonstration)이다.

각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발견하는 단계를 시작한다. 그리고 각 개인들이 공동체에 소속된 일원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배우고 각자가 가진 재능을 활용하여 힘을 모아 개선할 프로젝트의 주제를 선정한다.

두 번째, 준비와 계획단계에서는 학생들의 재능을 지역의 문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의사결정 방법을 배우면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프로젝트의 계획서를 작성한다.

이어서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학생들은 자신들이 작성한 계획서를 토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배우고 친구들과 협력하는 것을 경험 할 수 있다. 프로젝트를 수행한 후에는 학생들은 자신들이 기획하고 실천 하면서 느끼고 배운 점을 나누어 보면서,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시연단계는 학생들이 그동안의 모든 과정을 결과물들을



정리하고 최종 마무리를 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프로젝트와 평가한 내용은 지역사회 내에서 전시하여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 사회에 대하여 동기를 부여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신들이 속한 지역사회에 실제로 참여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과정에서 친구들과 함께 의사를 결정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간다. 그리고 이 활동들을 통해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증가하고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친절을 베푸는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고 한다(Kaye, 2010).

정리하면, 교과목의 내용을 활용하여 학생들 스스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실질적으로 준비하여 참여하는 과정인 Service-Learning은 나눔교육의 방법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그리고 현재 국내의 나눔교육 프로그램의 과정에 적합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 3. 나눔교육의 주체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와 가정에서 부모는 나눔의 습득과 생활화를 위해서 아동에 많은 영향을 준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강철희 외(2007) 연구에 의해 부모와 교사 그리고 지역사회의 연계의 필요성이 제기하였다. 이론적으로도 부모, 교사, 지역사회 지도자 등은 아동이 이타적인 행동을 가르치고 촉진시키는 중요한 성인이다(Eisenberg & Mussen, 1989). 구체적으로 교사와 부모의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부모님의 모델링은 아동들의 친사회적 혹은 이타적인 행동에 아주 중요한 학습요인이다(Bandura, 1977). 부모는 자녀들에게 사회화 과정에서 나눔 실천을 위한 모델로서 나눔과 관련된 가치를 내재화하도록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을 통해 부모의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은 자녀들의 현재 및 미래의 나눔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Bekker, 2005; McLellan & Youniss, 2003; Ottoni-Wilhelm, Estell & Perdue, 2014).

구체적으로 McLellan & Youniss(2003)의 연구에서 부모님의 봉사활동이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고, Ottoni-Wilhelm et al.(2014)는 미국 청소년들의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에 부모님의 롤모델 행동과 대화가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아동의 사회성 증진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부모와 함께 큰 영향력을 가진 성인이 바로 교사일 것이다. 교사는 사회성이 직접적으로 실현되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타성과 친사회성을 익히고 실천하도록 가르침을 주는 역할을 한다(강철희 외, 2007). 또한, Emile Durkeim와 Lickona도 친사회성과 같은 개념의 도덕적 사회화 과정에서 역할모델로서 교사의 영향력은 강력하게 작용한다고 했다(아름다운재단, 2009에서 재인용).

가정과 학교는 아동 및 청소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나눔 행동을 습관화하기 위한 최적화된 환경으로, 교사와 부모들의 나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본보기가 요구된다. 그리고 교사와 부모가 나눔교육의 방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학교에서의

배움이 가정에서 습관화될 수 있도록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강철희 외, 2007).

위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나눔교육의 경우 교사와 부모에 대한 개입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국내 나눔교육을 담당하는 비영리기관의 교육주체를 살펴본 결과, 나눔교육의 진행 담당은 주로 비영리기관에서 양성된 전문 강사로 학교의 학급단위로 파견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아름다운재단 및 월드비전을 비롯하여 몇몇의 기관에서는 교원을 대상으로 나눔교육을 진행하여 학급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은 운영하는 기관도 존재한다. 하지만, 국내 비영리기관의 대부분은 대학생 또는 경력단절 여성층의 강사를 양성하여 학교로 파견하여 나눔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표5>를 통하여 국내 대부분의 비영리기관은 각자의 기관에 적합한 교육내용에 적합한 강사를 양성하여 나눔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와 부모를 대상으로 나눔교육을 진행하는 기관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강사에 의해 나눔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표 5> 국내 비영리기관 나눔교육 주체

기관명	교육 주체
구세군	교육강사
굿네이버스	교육강사
기아대책	교육강사
사랑의열매	교육강사
어린이재단	교육강사
월드 비전	교육강사 및 교사
아름다운가게	교육강사
아름다운재단	교사 및 학부모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교육강사 및 교사

참고: 나눔국민운동본부(2013)

선행연구를 통하여 살펴본 결과 나눔교육을 담당하는 주체는 교사와 부모는 각각의 역할 가운데서 나눔이라는 가치를 잘 전달 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교사와 부모와 함께 아동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눔을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철희 외, 2007; 아름다운재단, 2009; Bekker, 2005; Janoski & Wilson, 1995; McLellan & Youniss, 2003).

이와 같은 이론적 근거와 국내 실태를 바탕으로, 나눔교육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아동들의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교사와 부모가 연계한 나눔교육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C. 나눔교육과 공동체 의식·친사회적 행동의 관계

### 1. 나눔교육과 공동체 의식의 관계

공동체의 어원을 살펴보면, 라틴어의 Communis로 ‘함께’라는 의미와 ‘봉사한다.’의 의미의 합성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모두가 함께 참여하다’를 의미한다(고정리, 2013). 그리고 고대 그리스 시대의 학자인 플라톤은 인간을 공동체를 이루며 안정과 번영을 위해 참여하는 존재로 설명하면서, 공동체 내에서 인간은 성숙한 삶이 가능하다고 보았다(Plato, 2013). 다시 말해, 폴리스(공동체)는 개인적으로 채우지 못하는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탄생하였고, 각 개인은 모두가 상호적으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각자의 맡은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공동체의 유지를 위하여 각 개인이 가진 특성과 재능을 활용한 자신의 일을 하면서 행복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Plato, 2013).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아리스토텔레스도(2009)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이상의 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공동체를 이루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덕의 실현이 이루어진 집단이 공동체라 보고, 공동체 의식이란 덕의 실현을 의미로 보았다(고정리, 2013). 그리고 라틴어 어원에 따라 폴리스(공동체)에 소속된 폴리테스(시민)의 삶은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고 보았다(Aristotle, 2009).

정리하자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고대 그리스 학자들은 공동체를 개인의 삶을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필수적이고 자연적인 집단으로 보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개인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실현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최근에는 개인주의에 의한 사적이익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하여 참여, 주체의식, 의미로서의 공동체의 필요성과 공동체 의식이 강조되고 있다(고정리, 2013).

이는 급격하게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발생하는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 개인의 공동체 의식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사회의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반박하여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강조되고 있는 공동체 의식에 대한 최근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표적으로 McMillan과 Chavis(1986)가 있는데, 공동체 의식을 각 구성원들이 느끼는 소속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영향력, 구성원 모두의 협력을 통한 각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욕구의 충족 그리고 같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공유하게 될 것이라는 헌신과 믿음의 정서적인 유대로 보았다. 이와 유사하게 Maclver(1981: 김원겸, 2004에서 재인용)는 소속감을 의미하는 우리의식(We-feeling)과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책임감인 역할의식(Role-feeling)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 물질적 의존과 이를 기반으로 한 심리적인 의존도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의존의식(Dependency-feeling)을 중요 개념으로 보았다.

국내에서도 공동체 의식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김원겸(2004)은 공동체 의식은 소속감, 감정, 일체감과 같은 귀속의식과 연대, 상호영향 그리고 정서적인 연계 등의 타인과의 유대감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만족감과 애착심의 평가 그리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할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초등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을 연구한 박지원(2009)도 공동체 의식을 구성원들의 심리적인 소속감과 연대의식을 포함하며 나아가 공동체 전체의 발전을 위하여 각 개인의 실천적인 의식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초등학생의 공동체 의식과 학교 적응간의 관계를 연구한 조성수(2007)는 친밀감 혹은 소속감, 조화와 단결, 자발적 참여, 일체감 혹은 상호영향의식, 자율성 및 공공의식으로 정리하였다.

다음과 같이 공동체 의식의 정의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공동체 내에 일원으로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과 각 개인 간의 혹은 공동체 전체와의 영향을 주고받는 것, 그리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실천과 책임 혹은 역할의식이 포함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공동체 의식이란 단순히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심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를 위한 개인의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

한다고 볼 수 있다(박가나, 2009).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의 공동체 의식 척도에서도 심리적인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질문을 구성하였다는 것을 통해 공동체 의식의 요인 중 실천적인 부분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선숙, 안재진, 2012). 심리적인 부분과 함께 실천적인 부분은 공동체 의식의 구성요인으로 자연스럽게 필수적인 요인으로 간주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학교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였는데(고정리, 2013; 김동일, 김명찬, 이예슬, 오정수,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굿네이버스 사회개발사업부, 2013; 오지원, 2013; 조성수, 2007), 이는 학교는 학교라는 공간이 광범위한 지역사회의 하위체계이면서 교사와 학생들 상호간의 관계와 활동이 있는 사회적 공간이기 때문이다(오지원, 2013). 또한, 학생들은 학급 내에서 서로를 돕고, 협력하는 경험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의미와 나눔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학생들은 학급을 넘어 학급, 그리고 지역사회로 자신의 공동체를 확산시켜가면서, 나눔을 실천할 것이다(김동일 외, 2008).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나눔교육의 효과를 초등학교 학생들의 사회적 기반이 되는 학급을 공동체라 보고, 학급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상호영향의식, 단결 혹은 협동, 공공의식 및 사회적 책임감, 참여 혹은 실천으로 정의하고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정의한 공동체 의식은 나눔 간의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나눔과 공동체 의식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즉,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구성원들과의 상호영향력을 인식하고 실제로 공동체를 위한 참여와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나눔 행동을 실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동체에 대하여 소속감과 애정을 많이 가질 경우 일상생활에서 타인 혹은 사회를 위한 나눔 행동을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Service-Learning을 실시하고 그 효과성에 대해 조사한 연구들을 통해 공동체 의식이 증가하였다는 결과들을 찾아볼 수 있다(Eyler & Giles, 1999; Moely et al., 2002; Simon & Cleary, 2006).

LTG의 교육 효과성 연구를 실시한 Indiana University와 Michigan University는 실

제 학급에서 교육을 진행한 교사와 학생에게 모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교사는 나눔에 대한 이해가 증가되었고 학생들은 공동체 의식과 참여가 실제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장기적인 연구를 통해서도 나눔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의 만족도와 학생들의 나눔 행동과 공동체 참여에 대한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Church, Floden & Zimmerman, 2005; Floden, 2010;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2013)

국내 나눔교육에서 실제로 공동체 의식 함양을 목적을 두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 연구는 제한적이다. 그 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나눔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김동일 외, 2008)에서 친사회성의 하위요인 중 공동체 의식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굿네이버스의 나눔교육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에서 공동체 의식 척도를 사용하여 효과성을 검증하였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김동일 외, 2013).

나눔 행동의 대표적인 형태인 봉사활동과 사회참여 행동을 통해 사회적 연대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감도 높아지며, 공동체 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검증한 연구들이 있다(김선숙, 안재진, 2012; 박재숙, 2010; 한대동, 오경희, 2013; 한은영, 김미강, 2013; Perkin & Miller, 199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선숙과 안재진(2012)이 청소년을 1,426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자원봉사활동 시간과 만족도 모두 공동체 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Service-Learning의 활동과 유사한 부분이 포함된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이 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은영, 김미강, 2013). 그리고 청소년 참여활동과 공동체 의식에 대하여 연구한 박가나(2009)는 참여활동 중 청소년의 의사결정 권한이 많고 적극적인 참여일수록 공동체 의식 함양효과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실제 기획하고 진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참여하는 만큼 공동체 의식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고정리(2014)의 의하면 공동체 의식은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고 정서지능은 또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나눔교육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참여와 자신이 속한 공동체 내의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이 강해진다는 측면에서 나눔교육은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Perkins와 Miller(1994)는 아동들이 나눔교육(service-learning)에 참여함으로써 시민윤리와 지역사회의 상호부조를 이해하게 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회적 책임감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발달한다고 한다. Waterman(2014)도 자신이 타인 혹은 지역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험을 통해 실제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부와 지역사회 기관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며, 투표와 정치적 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성장한다고 밝히고 있다. SSPP의 연구에서도 실제로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행하면서 실질적인 능력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시민으로서의 참여가 증가하였다고 한다(<http://www.learningtogive.com>).

그리고 아동·청소년들의 나눔 경험은 성인기에도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서현선, 2005; Independent Sector, 1998). Northern Kentucky 연구팀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McDonald & Olberding, 2012), 나눔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인식 수준과 지역사회 비영리기관에 참여가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적극적인 시민으로 성장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고찰을 통해, 아동·청소년기에 나눔 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교육을 받고, 실제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봉사활동과 사회참여 등의 나눔 행동은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과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시키는데 장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진행하는 나눔교육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이 증진될 것이라 추정한다.

## 2. 나눔교육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

친사회적 행동은 다른 사람을 돕거나, 돕기 위한 노력을 하는 행동으로 일반적으로 도움주기, 나누어주기와 같은 행동으로 볼 수 있는데, 순수하거나 의도적인 행동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친사회적 행동은 외적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돕기, 친절하기, 나눠주기, 협력하기와 같이 다양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타인에게 이로움을 주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도 있다(Batson & Powell, 2003).

친사회적 행동을 좁게 그리고 넓게 이해한 다양한 학자들이 있다. 먼저, 친사회적 행동을 광의적으로는 이해한 학자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활동으로 보고 이타성과 구분하지만, 그 의미를 협의적으로 이해한 학자들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타인에게 도움을 주려는 내적 동기로 이타성과 동일하게 간주한다(김동일 외, 2013; 이경은, 강철희, 2007).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적 측면을 강조하여 이타성과 유사하다고 주장한 Bar-Tal(1976)의 입장이 있다. 즉, 친사회적 행동은 이타적 행동이라 볼 수 있는 기부, 자원봉사, 도와주기, 나눠주기, 위안, 협동, 물건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동일한 개념으로 보았다(김동일 외, 2013). 그리고 국내의 많은 연구들이 이타적 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다(김동일 외, 2013; 이경은, 2007; 위지혜, 2014).

한편, 이에 상반되는 입장을 밝힌 학자들은 친사회적 행동과 이타적 행동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Furman, 2011). 친사회성을 연구한 Eisenberg와 Mussen(1989)은 친사회적 행동이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의도한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정의하며 이는 다양한 이유에 의해 동기화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이타성은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한 내적인 동기에 의해 나타나는 자발적인 행동으로 친사회적 행동의 한 가지 형태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Honig와 Pollack(1990)도 타인에게 유익이 되거나 도움을 주기 위한 자발적인 행동으로 광의적으로 정의하였고, Bierhoff(2002)도 이타적 행동은 친사회적 행동의 특정한 유형이며, 친사회적 행동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특정한 유형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Hawley(2014)도 친사회적 행동은 타인을 위한 걱정 혹은 우려라는 동기 면에서 이타성과 차이가 나며,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다.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친사회적 행동과 이타성, 도덕적 행동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다. 먼저, 정신분석이론은 Freud의 주장으로, 인간의 모든 행동의 원인은 인간의 본능적 욕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도덕적 행동이라 볼 수 있는 친사회적 행동도 본능욕구로 설명할 수 있다. 친사회적 행동으로 볼 수 있는 돕기, 협동, 나누기 등의 행동은 죄의식을 피하기 위하여 사회에 적합한 행동으로 바꾸어 하는 행동이다(김동일 외, 2008). 그리고 정신분석이론에서는 초자의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과 작용원리를 통해 친사회적 가치관에 대해 설명한다. 양심이라고 볼 수 있는 초자아는 부모님의 가르침, 처벌 그리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규범 등이 아동의 발달 과정 중에서 내면화 된다. 그렇게 친사회적 행동이 발달하게 되면, 초자아에 의해 나타나는 죄책감을 피하기 위하여 친사회적인 행동을 한다.

친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또 다른 이론은, 행동주의와 사회적 학습이론으로 행동은 학습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데 친사회적 행동도 강화와 처벌에 의하여 학습되었다고 보는 입장이다. 법 혹은 사회적 관습에 맞게 행동하면 보상을 받아 그 행동이 증가되도록 하고,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경우 처벌을 받아 감소되도록 하는 원리로 행동이 발달한다는 것이다(위지혜, 2014). 그리고 Bandura의 사회 학습이론은 직접적인 강화나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타인의 행동을 지켜보는 것을 통하여도 도덕적인 행동을 학습할 수 있다고 보았다. 부모, 친구들의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행동을 습득하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대리학습과 모델링에 대해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인지이론이 있다. Piaget과 Kohlberg의 인지발달이론은 사고의 틀인 인지가 체계적으로 발달하면서 친사회적 행동도 발달한다고 보았다. 인지가 발달하지 않은 유아 혹은 초기 아동기 단계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며, 구체적 사고와 추론적인 사고가 가능한 단계에서 친사회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Piaget의 이론에 따르면, 구

체적 조작기인 7~12세에 타인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인 조망수용능력이 발달하는데 이를 통하여 친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Kohlberg는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수준에 따라 도덕성이 발달한다고 설명하였는데, 7~10세인 타율적 도덕성을 지나 10세 이후가 되면 자율적 도덕성의 단계에 도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도덕성의 기준이 되는 규칙이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단계에서 점차 사람과 환경에 의해 규칙은 변하기도 하고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단계로, 도덕적인 행동 자체보다 그 행위의 동기에 초점을 두게 된다(정옥분, 2011). 이와 같은 정신분석이론, 사회학습이론 그리고 인지이론을 통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나눔교육을 통한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은 사회학습이론을 기반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이경은, 2007)

이와 같은 이론을 통해 친사회적 행동은 이타성과 유사한 맥락을 가졌으며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친사회적 행동 유형을 살펴보면 친사회적 행동을 좀 더 깊게 살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은 대표적으로 기부와 봉사활동이 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친사회적 행동을 좀 더 넓은 의미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Honig과 Pollack(1990)은 나누기, 돕기, 협동하기로 구분하였고, Bar-Tal(1976)은 친사회적 행동은 나누기, 돕기, 기부, 관영, 이타성, 협력, 친절, 동정의 하위요인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Walsh(1980)은 협동, 양보, 나누기, 공감, 돕기, 우정, 도덕적 행동의 일곱 가지 범주로 친사회적 행동을 하위행동을 설명하였다(김동일 외, 2013에서 재인용).

그리고 국내 학자들은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 범주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발달에 대해 연구한 조희숙과 최영미(2004)는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을 친사회적 행동으로 정의하여, 도움을 주고 나누어 갖기의 하위행동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국내에서 진행된 나눔교육 관련 많은 연구에서는 주로 친사회적 행동을 친절하기, 도와주기, 공감하기, 나눠주기, 보호하기, 협동하기로 구분하였다(이경은, 2007; 맹지나, 2010; 김동일 외, 2013; 위지혜, 2014). 이는 나눔행동으로 대표되는 기부, 자원봉사활동과 친사회적 행동의 4가지 유형을 접목한

것으로 나눔교육의 효과성을 친사회적 행동 척도를 활용하여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이경은, 2007).

친사회적 행동의 이론과 하위요인을 통해서 나눔 행동이 친사회적 행동과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눔교육은 친사회적인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Bently와 Nissan(1996)은 나눔과 친사회적 행동은 유사한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는데(김동일 외, 2013에서 재인용), 이는 대표적인 나눔인 기부와 봉사 활동이 친사회적 행동의 나눠주기, 공감하기, 협동하기, 돕기 그리고 보호하기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이경은, 2007). 김연정, 김미희과 박태근(2012)은 친사회적 행동은 나눔행동으로 국가에 속한 국민이 사회의 문제 해결이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참여행동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친사회적 행동과 나눔 행동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도 나눔교육을 통해 친사회적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는 연구들을 살펴볼 수 있다(권선희, 2006; 맹지나, 2010; 이경은, 강철희, 2007; 위지혜, 2014). 먼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실시한 Child Development Project(CDP)는 사회에 대한 이해와 협동, 자원봉사 등을 포함한 교육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참여한 학생들의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하였음을 밝히고 있다(Battistich et al., 1991; 이경은, 2007에서 재인용). 또한, 본 연구의 모델 프로그램인 SSPP를 통해서 타인에 대해 도울 수 있는 자신감과 자존감이 증진되었고 친사회적 행동의 요인으로 볼 수 있는 타인과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 배려, 협력 및 대인관계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한다(<http://www.learningtogive.com>).

국내 나눔교육 연구에서도 친사회적 행동 증진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경은(2007)은 초등학생 81명을 대상으로 6회기 나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나눔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의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4회기 나눔캠프와 6회기 나눔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아동들의 변화를 양적, 질적으로 검증한 강철희 외(2007)의 연구는 친사회적 행동이 향상되었음을 증명하였다. 그리고 나눔교육을 통해 아동은 자신감을 갖게 되고,

나눔의 의미를 깨닫고, 나눔에 익숙해지며 생활화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그림책을 활용한 나눔교육 프로그램을 6주 동안 시행하고 유아의 나눔 인식과 친사회적 행동을 조사한 맹지나(2010)의 연구는 유아의 나눔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친사회적인 행동이 증가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추가적으로 김미숙과 조춘범(2014)는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이종은(2009)의 나눔교육 실시하여 친사회성을 비롯한 대인불안, 소외감, 사회성을 감소시키는데 유의미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리고 국내 비영리기관에서 시행한 나눔교육의 효과성 검증 연구를 살펴보면, 굿네이버스의 1회기의 나눔교육은 친사회적 행동, 다문화 수용성, 따돌림 관여 행동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동일 외, 2013).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나눔교육의 경우 친사회적 행동, 자기조절 효능감, 소외감, 공감, 공동체 의식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친사회성이 증가되었다고 보고한다(김동일 외, 2008).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통해, 나눔교육은 아동의 친사회적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나눔교육 프로그램의 실행하고 그 효과성을 친사회적 행동 척도를 통해 검증해보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A. 나눔교육 프로그램

##### 1. 모델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참고한 모델은 Student Service & Philanthropy Projects (SSPP)로 1991년 Surdna Foundaton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는 Service-Learning의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The Surdna Foundation은 New York City Board of Education과 함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 정도의 교과과정에서 진행된다(Kurzeka, 2009). SSPP는 학생들이 스스로 재단을 운영하면서 Philanthropy, Fundraising, Grandmaking과 같은 활동을 배우고 실제로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SSPP는 학생들이 스스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시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아이들은 리더십을 획득하게 되고, 이는 아이들이 더 나은 학교와 그들의 공동체에 대해서 상상하게 하는 역량을 개발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결정으로 인한 결과를 실제로 보게 되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습득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1991년 개발 이후 SSPP 모델은 미국 뉴욕시의 천여 명 학생이 참여하였고, 4년 동안 뉴욕 총 3군데 학교에서 시작하여 36개의 학교에서 시행될 만큼 확산되었고, 굉장히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를 받았다(Frank, 1994). 당시 상당한 지원을 받으면서 큰 규모로 시행되면서 성공적인 결과를 밝혔던 효과로 인해 현재까지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규모로 시행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Kurzeka, 2009). 그리고 뉴욕에서 시작한 SSPP는 미국 전 지역에 청소년 대상 나눔활동이 다양하게 확산되었고, 현재 LTG로 전달되어 더 많은 곳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자

료를 공개하였다.

SSPP는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이었지만, 이 모델의 경우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도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재단을 경영하는 경험을 통해 공익을 위한 실천을 몸과 머리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NYC Board of Education에 의해 검증한 결과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여, 기부 혹은 모금활동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변화의 기회가 되며, 지역사회 내에서 개인의 역할을 강화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SSPP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리더십, 의사소통 능력, 회계 및 분석 능력, 그리고 자존감이 증진되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무엇보다 자신이 속한 지역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신념이 생기고, 학생들의 활동이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같은 내용의 과정은 특별히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으로서 성장시키는데 효과적인 교육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http://www.learnigtogive.com>).

SSPP의 전반적인 내용은 협동심 학습을 위한 팀 활동, 공익재단의 역할에 대하여 숙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본격적으로 공동체의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실제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위한 제안서 작성과 발표 평가방법까지 배운다. 그리고 앞서 배운 내용을 적용하여 다음 학기에는 기획한 내용을 교사, 부모 혹은 관련 기관 담당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실제로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은 약 1년의 과정으로 총 5 Unit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Unit 1은 학급 구성원 간의 친밀감과 협동심을 기르는 내용이며 Unit. 2는 우리 사회의 재단의 역할에 대해 배우는 과정이다. Unit. 3은 지역사회 봉사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탐구와 함께 지역의 문제 발견, 프로젝트 주제 선정을 진행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Unit. 4의 프로그램을 실천하면서 경험하는 갈등과 의사결정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교육하고 실제로 아이들이 풀어나가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Unit. 5은 Reflection으로 학생들이 진행한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성찰하는 내용이다. 각 과정의 주요내용과 활동 내용에 대한



수업내용을 정리하면 <표 6>와 같다.

<표 6> SSPP 프로그램의 구성 및 활동내용

Unit	내용	활동	
1	<b>주제: 팀워크</b> 학습에 있는 서로서로가 잘 알게 되고 신뢰를 쌓고 협동에 대한 필요성을 체감하는 단계	친밀감 형성	학습 친구에 대해서 알기 각자의 이름을 알기 내가 아는 것 발표하기 감정 알아차리기
		협동심 개발	서츠에 나를 꾸미기 이름알기, 신뢰감 쌓기 협동에 대해 배우기
2	<b>주제: 재단의 역할 이해</b> 학교 내 학생들의 활동을 위한 재단으로서, 재단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운영방법에 대하여 배우는 단계	재단의 역사와 역할 이해 가치명료화, 재단의 용어 학습 지역사회 비영리기관에 대한 학습 연대표 작성 학생 재단의 초점 결정 재단 이름 정하기 재단 직원 뽑기	
3	<b>주제: 프로젝트 기획</b>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 할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단계	지역사회 봉사의 이유 탐색하기 사회사의 문제 파악 및 지역 조사 프로젝트 선정하기 프로젝트 기획하기 프로젝트 평가하기 기념식 계획하기	
4	<b>주제: 프로젝트 진행과 리더십</b>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의사결정 및 갈등해결 능력 등의 리더로서 성장하기에 필요한 능력들을 배우는 단계	집단의 역동 이해하기 쌍방향 소통의 효과성 집단에서 동의 획득하기 협상들 통한 우선순위 선정 편견의 오류 발견하기	
5	<b>주제: 프로젝트 성찰</b> 토론, 저널쓰기를 통하여 자신들의 활동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성찰하는 단계	세미나 연말 평가회	

참고: <http://www.learnigtogive.com>

## 2. 나눔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과 친사회성 증진으로 학생들이 한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으로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2014년 7월 16일부터 8월 13일까지 LTG를 방문하여 Philanthropy Education과 Service Learning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1인과 관련 기관(League, generationOn)의 전문가 6인의 조언을 받아 초안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국내 나눔교육 전문 강사 1인과 아름다운 재단 나눔교육 전문가들의 조언과 협조를 얻어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본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는 담당 선생님과 논의 후에 학생들 수준에 맞게 수정하여 최종안을 확정하고, 교과목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여 프로그램 구성과 함께 사회교과를 진행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총 5회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체 의식과 나눔, 배려에 대한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교육을 1회기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나눔의 실천을 위하여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 2회기와 실천하는 과정 1회기 그리고 학생들이 프로그램의 의미와 느낀점을 정리해보는 과정 1회기를 포함하였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내용을 기초로 LTG 수업자료 및 Leagu Michigan의 교사연수 자료를 추가로 참고하여 초등학교 학생들 수준에 맞는 활동으로 수정·보완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1회기에는 자신이 속한 학급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각 개인의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하여 또래와 가정에서 나누어보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공동체 내에서 각 개인들의 책임감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하고, 공동체의 의미와 종류 그리고 각 개인이 공동체 내에서 왜 나눔과 협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동체게임, 영상시청과 토론을 통해 배우는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는 SSPP 프로그램 중 Unit.1과 Unit.3의 Lesson 1인 Exploring Reasons for community Service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LTG 수업교안 중 Philanthropy Is Everywhere: Intro. to Philanthropy Unit (3rd)에서 참고하였다.

2회기는 초등학교 수준에서 실행해 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단계로서 자신들의 공동체가 가진 미래를 상상하면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브레인 스토밍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학생들은 나와 다른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을 배운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를 해결하기 위해 봉사 및 사회참여 활동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본 내용은 Unit. 3의 lesson 2(Identifying Problems in the Neighborhood)와 lesson 4(Choosing Good Community Service Project)의 내용이며 LearnigtoGive의 We the Community—Past, Present and Future의 we are community를 참고하였다. 그리고 League Michigan(2014)의 교사연수 자료 중 Ideal Social를 번안한 내용으로 공동체의 문제를 발견하기 위한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3회기에는 2회기에서 선정한 주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에 대하여 조사하고 반영하는 활동을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전체의 목표를 위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모두가 힘을 모아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힘과 기쁨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전체 공동체를 위하여 프로젝트를 통하여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된다. 본 내용은 SSPP의 Unit. 3의 lesson 5의 내용인 Designing a Specific Project를 참고하였다.

작성된 계획서를 실제로 실행해보는 4회기에는 다른 친구들과 협동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것 나아가 나눔에 대한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함께 협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우고 실제로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의견을 조율 하는 방법을 익히는 과정이다. 본 내용은 Unit 4의 내용이며 Kaye(2010)을 참고하여, 학생들이 자신들이 지나온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들을 다시 정리하고 나눌 수 있는 성찰의 과정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회기에는 모든 과정을 평가하고, 함께 한 친구들과 축하하는 시간을 통해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단계이다. 이는 SSPP의 Unit. 5의 Reflection의 내용과 Kaye(2010)의 내용을

참고하여 평가의 시간 및 질문사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League Michigan(2014) Photo Journal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다시 보면서 각 과정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다음의 내용을 <표 7>로 정리하였고, <부록1>에 회기별로 자세하게 수록하였다.

### 가. 교과목 연계 방안

본 프로그램은 교사와 부모와의 연계를 통하여 나눔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교과내용과 연계하고 부모님과 함께 복습하는 과정을 함께 구성하였다. 먼저, 사회교과 과목의 지역사회에 대한 학습내용을 접목시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014년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학습 목표에는 지역사회에 발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에서 모두가 협력하고 있으며 지역의 주민들이 어떻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지 보고 이해하여 지역의 문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성장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그리고 교과서 내용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지역을 바라보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인 참여와 합리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학습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아이들은 지역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지역 문제에 대해 어떻게 참여해야 하며, 그 절차는 어떠한지 배우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본 연구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를 이해하고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나눔을 실천시키고자 하는 것과 유사하다. 구체적으로, 학습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다.

첫 째,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측면에서 원인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을 제안한다.

둘 째, 우리의 지역에서 주민들이 실제 참여한 활동이나 자원봉사 활동의 내용을 찾아보고, 그것들이 왜 의미가 있었는지 설명한다.

셋 째, 우리 지역의 미래 발전한 모습을 상상해보고, 그림 혹은 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현실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제시한다.

위의 내용은 지역 사회의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4학년 2학기 3단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문제와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학습과정을 배우고 실제로 적용을 해보는 단계로 본 프로그램과 접목하여 수업내용과 함께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사회과 수업 기법 중 프로젝트 학습법은 학생들이 실제로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여 결과를 얻으면서 배우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그 의미를 알게 하는 것으로 교사들이 실제로 적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프로젝트 학습은 교사와 학생들 간의 상호 작용과 협동에 대해 학습이 이루어지게 도움을 주고 학생들이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와의 교류가 활발하다. 그리고 개개인의 학습 동기를 북돋아 의미가 있는 학습이 될 수 있는데 이는 다양한 방법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학생들의 관심을 반영하여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과목에서 언급되고 있는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이라는 내용의 프로젝트 학습의 내용으로 연계하여 진행하였다. 실제 교과와 접목하여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학습 효과도 증진시키고 공동체 의식과 친사회적 행동 증진을 하고자 하였다.

#### 나. 가정 연계 방안

가정에 대한 연계 방안으로는 가정 내에서 공동체의 의미와 개인의 역할에 대해 나누고 토론을 진행하고 실제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하여 실천해볼 수 있는 안내장을 교사의 가정통신문과 함께 발송하였다. 교육 당일 배운 내용에 대한 요약과 가정에서 진행할 수 있는 질문 내용을 포함한 안내장을 통하여 부모는 나눔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이해하고 부모도 함께 공동체와 의미에 대해 함께 배우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아동들이 가정에서도 부모님을 통해 일관적인 가르침을 얻을 수 있어 교육의 효과성이 극대화 될 것이다. 나아가 가정 내에서 실천하는 활동을 통해 나눔이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1회기에는 가정공동체의 의미와 각 구성원들의 책임이 무엇인지 가족과 함께 토

론할 수 있는 안내장을 전달하였다. 이를 통하여 가정 내 협력과 나눔이 왜 필요하고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지 부모님과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부모님이 공동체 내에서 가진 역할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배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가정 안에서 나아가 가정이 속한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논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2회기에는 학급에서 진행된 내용과 동일하게 가정의 미래를 상상하고 문제점을 발견해서 좀 더 나은 공동체가 되기 위한 주제를 선정하는 것으로 활동지를 제공하였다. 또한, 학급에서 진행한 내용에서 아이들이 선정한 주제와 프로그램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하여 부모님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3회기와 가정공동체에서 적용할 수 있는 활동 내용과 함께 아이들의 나눔교육에 대한 보고와 필요사항에 대해 부모님들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참여를 부탁드리는 안내장을 전달하였다. 실제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부모님들의 협조사항은 어떤 것인지 전달하였다.

마지막 4~5회기에는 아이들이 작성한 소감문과 그동안의 교육 영상을 부모님이 볼 수 있도록 전달하고 나눔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변화한 생각을 행동을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도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해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관련 내용을 제공하였다.

<표 7> 나눔교육의 구성내용

회기	주제	교육내용	부모연계	교과목연계
1	개인과 공동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동체 게임</li> <li>2. 공동체의 의미와 개인의 역할에 동영상 시청</li> <li>3. 분단별 공동체에 대한 생각 토론</li> <li>4. 조별 포스터 제작</li> </ol>	가족토론 안내지 발송	지역사회의 발전 (3단원 1~2차시)
2	이상적 사회와 현실적 대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상적 사회 토론</li> <li>2. 모듬별 브레인스토밍</li> <li>3. 주제를 선정(투표)</li> </ol>	가정공동체 활동지 발송	우리 지역의 미래모습 (3단원 4차시)
3	자원탐색 및 기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계획서를 작성 연습</li> <li>2. 인터넷 검색, 자료수집</li> <li>3. 계획서 작성(의사결정)</li> <li>4. 담당업무 배정</li> </ol>	사전자료 조사지	지역의 문제해결 (3단원 2차시) 및 학급회의
4	실행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계획된 활동을 실행</li> <li>2. 소감을 토론 및 기록</li> </ol>	부모님 참여 동의서 & 학생들의 영상 파일 전송	주민참여와 자원봉사 (3단원 3차시)
5	성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활동 내용 발표</li> <li>2. 사진 및 영상을 감상</li> <li>3. 공동체와 나눔에 재정의</li> </ol>		

## B.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공동체 의식과 친사회적 의식 증진을 위한 나눔교육을 실시하고 그 효과성을 증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 째, 나눔교육 프로그램은 아동들의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 째, 나눔교육 프로그램은 아동들의 친사회적 행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 C. 연구 대상

서울에 소재한 초등학교 1곳에서 4학년 9학급 중 학생들의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는 2학급을 편의 표집하고, 교사의 참여 의사에 따라 나눔교육을 통해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학급을 실험집단으로 구성하고, 일반적인 교과과정으로 진행되는 학급을 비교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의 본인과 보호자의 연구 참여 동의서를 획득한 후, 학급 내 전수조사를 통해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를 초등학교 4학년을 선정하여 실시한 것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시기는 나눔과 봉사 그리고 이에 필요한 사회적인 기술들을 학습하기에 적합하다는 결과에 기반을 둔다(Bently & Nissan, 1996).

다만, 연구 참여를 수행하기 어려운 신체적 질병이나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연구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다. 또한, 연구 도중 신체적·정신적 질환이나 장애로 인해 연구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연구를 중단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다.

〈표 8〉 연구 대상 인원 수

구분	학생수
실험집단	24명
비교집단	23명
총	47명

## D. 연구 설계

프로그램에 효과성 검증을 위하여 유사실험설계 중 비동일 비교집단 설계(non-equivalent comparison group design)를 활용하였다. 이 설계 방법은 실험집단과 유사한 점을 지닌 비교집단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실험설계에 비해 내적 타당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 상당 수준의 인과적 추론을 이끌어 내는 방법이다(Rubin & Babbie, 2008).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방식은 한 서울시 소재한 한 학교에서 동일한 학년 중 학급 1반을 실험집단으로 그리고 1학급을 비교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실험집단에 해당하는 학급만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두 집단은 사전과 사후에 각각 나눔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검사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사전점수를 통해 두 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확인하고, 사전점수를 통제된 사후점수의 차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시행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살펴보았다.

〈표 9〉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연구 설계

실험집단	O1	X1	O2
비교집단	O3		O4

01, 03: 사전검사  
02, 04: 사후검사  
X1: 실험처치 (나눔교육 프로그램)

## E.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14년 11월 24일에서 12월 2일까지 실시하였고 연구 절차는 연구동의서 획득, 사전 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순으로 진행하였다.

### 1. 연구동의서 획득 및 사전 검사

본 연구의 사전 검사를 시행하기 전 연구대상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유의사항 그리고 혜택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사항에 대한 설명문을 제공하고 동의서를 획득하였다. 그리고 실험이 실시되기 전 11월에 실험집단 24명과 비교집단 23명 총 47명을 대상으로 친사회적 행동척도와 공동체 의식 검사를 실시하였다.

### 2. 실험처치

본 연구의 나눔교육 프로그램은 2014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주간의 기간 동안 총 5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1회기 당 40분씩 총 2교시를 활동 1과 2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같은 기간에 비교집단에는 기존의 수업방식을 그대로 진행하였다.

### 3. 사후 검사

실험처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사후검사는 총 5회의 실험처치가 끝난 후 바로 총 47명을 대상으로 사전검사와 유사한 조건에서 동일한 검사지를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 F.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측정도구는 공동체 의식 척도와 친사회적 행동 척도로 먼저, 공동체 의식 척도는 우남희, 이연섭, 정진경, 정병호, 이기범 (2001)의 21세기 한국 사회의 공동체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공동체 교육에서 개발한 것을 조성수(2007)연구에서 초등학생 수준으로 수정 및 보완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총 문항 수는 20문항으로 친밀성과 소속감, 조화와 단결, 자발적 참여와 의사표현 일체감과 상호영향의식 그리고 자율성과 공공의식 영역에 차례대로 각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별 응답은 리커트 식 5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그리고 ‘매우 그렇다’ 는 5점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총점은 최고점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 s a .914고, 하위요인 모두 .60이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리고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종교, 주관적 생활수준, 형제 수) 그리고 부모의 맞벌이 여부와 학력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함께 파악하였다.

〈표 10〉 공동체 의식 검사의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친밀성과 소속감	1,2,3,4	4	.687
조화와 단결	5,6,7,8	4	.666
자발적 참여 및 의사표현	9,10,11,12	4	.821
일체감과 상호영향의식	13,14,15,16	4	.791
자율성과 공공의식	17,18,19,20	4	.721
계		20	.914

또한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친사회적 행동검사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 척도는 Eisenberg(1982)의 이타성 자기보고식 검사로 김수연(1995)가 변안한 것으로, 국내 나눔교육 효과성 검증에 사용한 이경은(2007)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이 척도의 경우 친절하기, 도와주기, 공감하기, 나눠주기, 보호하기, 협력하기 등의 6가지 하위요인으로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리커트식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매우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평가한다. 점수 분포는 총점 1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의 경향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는 .922로 6가지 하위요인 모두 .60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만한 수준이다.

〈표 11〉 친사회적 행동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alpha$
친절하기	1, 5, 8, 13, 27	5	.630
도와주기	3, 18, 21, 23, 25, 28	6	.716
공감하기	11, 12, 14, 24, 26	5	.726
나눠주기	4, 10, 16, 19	4	.644
보호하기	2, 6, 7, 9	4	.749
협력하기	15, 17, 20, 22	4	.676
	전체	28	.922

## G. 자료 분석

위의 자료들은 SPSS 18.0을 활용하여 카이제곱 검정( $\chi^2$ -test)과 독립표본 t-test 그리고 공분산 분석방법을 시행하였다. 먼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 $\chi^2$ -test)을 실시하였다. 또한 두 집단의 공동체 의식 점수와 친사회적 행동 사전점수로 독립표본 t-test를 시행하여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친사회적 행동의 비동질성을 확인하여 사전점수를 통제하고 프로그램의 순수 효과성을 파악할 수 있는 공분산 분석(ANCOVA)를 시행하였다.

## V. 연구결과

### A.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는 나눔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서울 소재의 초등학교 4학년 2학급, 총 47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는 실험집단 24명과 비교집단 23명이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들은 <표 12>와 같다. 그리고 아동의 공동체 의식과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신지은, 최혜원, 서은국, 구재선, 2013)들의 동질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chi^2$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남학생이 실험집단은 11명(45.8%)이고, 비교집단은 10명(47.8%)으로, 실험집단의 여학생 13명(54.2%), 비교집단 여학생 12명(52.2%)보다 적었다. 종교의 경우 실험집단 비교집단 모두 기독교의 비율이 9명(37.5%), 12명(52.5%)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종교가 없는 경우가 8명(33.3%)과 6명(26.1%)로 2위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연령은 동일한 학년을 실시하여 대부분의 연구대상자가 11세였지만, 실험집단의 경우 12세인 학생이 2명(8.3%)으로 차이가 있었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모두 1명의 형제가 있는 학생이 11명(45.8%), 15명(65.2%)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외동의 비율은 실험집단은 25%로 비교집단 13%보다 많았다. 주관적인 생활수준을 평가한 결과에 있어서도 실험집단은 본인 가정이 잘 산다고 평가한 비율이 14명으로 58.3%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반면, 비교집단은 중간정도로 평가한 비율이 14명이 되어 60.9%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부모의 맞벌이 여부는 실험, 비교 집단 모두 79.2%, 65.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실험집단의 부의 학력과 모의 학력 모두 대졸이 41.7%(10명)과 45.8%(11명)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대학원 이상이 2위를 차지하였다. 비교 집단도 부와 모의 학력이 대졸이 47.8%(11명)와 43.5%(10명)로 가장 많게 나타났는데, 실험집단과 달리 대학원 이상의 비율이 0이며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부가 34.8%와 모는

30.4%로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있어서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 $\chi^2$ -test)을 실시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항목	구분	실험집단		비교집단		$\chi^2$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11	45.8	11	47.8	$\chi^2 = .019$
	여자	13	54.2	12	52.2	
종교	기독교	9	37.5	12	52.2	$\chi^2 = 6.496$
	불교	1	4.2	3	13.0	
	천주교	4	16.5	1	4.3	
	무교	8	33.3	6	26.1	
	기타	2	8.3	1	4.3	
연령	11세	22	91.7	23	100	$\chi^2 = 2.00$
	12세	2	8.3	0	0	
	없음	6	25.0	3	13	
형제 수	1명	11	45.8	15	65.2	$\chi^2 = 7.375$
	2명	7	29.2	2	8.7	
	3명	0	0	3	13.0	
부모의 맞벌이 여부	예	19	79.2	15	65.2	$\chi^2 = 1.142$
	아니오	5	20.8	8	34.8	
주관적 생활수준	상	14	58.3	8	34.8	$\chi^2 = 2.703$
	중	9	37.5	14	60.9	
	하	1	4.2	1	4.3	
부의 학력	중졸	2	8.3	0	0	$\chi^2 = 6.220$
	고졸	4	16.7	14	17.4	
	대졸	10	41.7	11	47.8	
	대학원 이상	5	20.8	0	0	
	모름	3	12.5	8	34.8	
모의 학력	중졸	1	4.2	0	0	$\chi^2 = 5.879$
	고졸	4	16.7	6	26.1	
	대졸	11	45.8	10	43.5	
	대학원이상	5	20.8	0	0	
	모름	3	12.5	7	30.4	
합계(47명)			24명		23명	

\*p<.05 \*\*p<.01 \*\*\*p<.001



## B.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 동질성 비교

### 1. 공동체 의식 사전 동질성 비교

나눔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 공동체 의식 점수를 독립표본 t-test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공동체 의식 사전 점수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t=-4.400$ ).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았을 때도, 모든 하위요인에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점수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로 나타났다. 다음의 내용은 <표 13>으로 정리하였다.

<표 13>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공동체 의식 사전 동질성 비교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공동체 의식	실험집단	24	79.41	13.20	-.400
	비교집단	23	80.74	9.10	
친밀성과 소속감	실험집단	24	17.42	2.52	.944
	비교집단	23	16.74	2.40	
조화와 단결	실험집단	24	15.75	2.72	-1.215
	비교집단	23	16.57	1.80	
자발적 참여와 의사표현	실험집단	24	15.63	3.72	-.539
	비교집단	23	16.13	2.58	
일체감과 상호영향의식	실험집단	24	14.50	3.18	-.945
	비교집단	23	15.32	2.64	
자율성과 공공의식	실험집단	24	15.82	3.43	.834
	비교집단	23	16.57	2.54	

\* $p<.05$  \*\* $p<.01$  \*\*\* $p<.001$

## 2. 친사회적 행동 사전 동질성 비교

사전 친사회적 행동의 점수를 독립표본 t검정으로 비교한 결과 실험집단의 점수와 비교집단의 점수 차이가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점수가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하위요인별로 차이를 살펴본 결과 도움주기( $t=-1.001$ ), 친절하기( $t=-1.946$ ), 나눠주기( $t=-2.011$ ), 보호하기( $t=-1.772$ )의 영역은 사전점수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차이가 유의수준 .05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감하기( $t=-2.887$ )와 협동하기( $-2.415$ )의 영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공감하기와 협동하기 영역에서는 실험집단의 사전점수가 비교집단에 비해 점수가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프로그램 대상자의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나눔교육 프로그램의 순수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사전 친사회적 행동 점수를 공변인으로 한 공분산 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다음은 <표 14>와 같다.

<표 14>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친사회적 행동 사전 동질성 비교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친사회적 행동	실험집단	24	99.27	19.35	-2.467*
	비교집단	23	111.22	13.14	
도움주기	실험집단	24	17.70	3.80	-1.001
	비교집단	23	18.70	2.87	
친절하기	실험집단	24	22.79	4.36	-1.946
	비교집단	23	24.91	2.94	
공감하기	실험집단	24	16.71	4.87	-2.887**
	비교집단	23	19.96	2.53	
나눠주기	실험집단	24	14.46	3.66	-2.011
	비교집단	23	16.26	2.38	
보호하기	실험집단	24	14.93	3.50	-1.772
	비교집단	23	16.57	2.83	
협동하기	실험집단	24	12.68	3.76	-2.415*
	비교집단	23	14.83	2.15	

\* $p<.05$  \*\* $p<.01$  \*\*\* $p<.001$

## C. 나눔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참여한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과 친사회적 행동의 사전·사후 변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공분산 분석(ANCOVA)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집단별 공동체 의식의 변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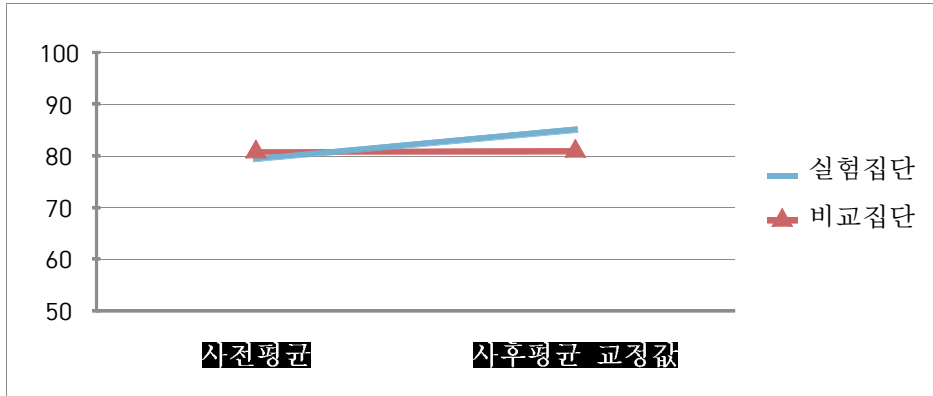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사전점수를 통제된 공분산분석(ANCOVA)를 실시하였고 <표 15>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실험집단의 사전점수는 79.41점이고, 사후점수 교정값의 경우 85.06으로 나타났다. 이제 반해 비교집단의 경우, 사전점수는 80.74점으로, 실험집단 보다 더욱 높았지만, 사후점수 교정값은 80.89로 실험집단보다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사전 점수를 공변인으로 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후점수 교정값의 차이가 더욱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5> 공동체 의식 사전 사후의 평균 및 표준편차

구분	실험집단(n=24)			비교집단(n=23)		
	사전점수	사후점수	사후점수 교정값	사전점수	사후점수	사후점수 교정값
평균	79.41	84.54	85.06	80.74	81.44	80.89
표준편차	13.20	14.52		9.10	10.13	

[그림 1]과 같이 실험집단의 사전점수는 비교집단에 비해 약간 낮았지만, 프로그램 이후 사후점수의 교정값은 실험집단의 점수가 비교집단 보다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집단별 공동체 의식의 사전 사후 평균 비교



하지만 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한 공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1, 44) = 2.715$ ). 따라서 본 연구의 나눔교육 프로그램이 공동체 의식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에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의 내용은 <표 16>로 정리하였다.

<표 16> 공동체 의식에 대한 공분산 분석 결과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공변인	3714.15	1	3714.15	49.53***
집단	203.61	1	203.61	2.715
오차	3299.40	44	74.98	
전체	7217.16	46		

\* $p < .05$  \*\* $p < .01$  \*\*\* $p < .001$

공동체 의식의 하위요인별로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율성과 공공의식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실험집단의 경우 사전점수 15.82에서 사후점수 교정값이 16.88점으로 증가하였고, 비교집단은 16.57에서 14.96점으로 낮아졌다. 이를 통하여 두 집단의 차이 더욱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율성과 공공의식의 공분산 분석의 유의수준 .01수준에서 유의하다는 결과로 나타났다( $f(1, 44) = 9.555, p < .01$ ).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프로그램이 하위요인 자율성과

공공의식의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하위요인인 친밀성과 소속감은 실험집단 17.42점에서 17.35로 낮아졌으며, 비교집단은 16.74점에서 17.55로 증가하였다. 이에 집단의 유의미한 정도가 나타나지 않았다 $[f(1, 44) = .072]$ . 조화와 단결의 영역은 실험집단의 점수가 15.75점에서 17.09로 증가하였고, 비교집단의 점수가 16.57에서 16.11로 낮아졌으나 두 집단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f(1, 44) = 1.730]$ . 그리고 자발적 참여 및 의사표현도 사전점수에 비해 실험집단의 점수는 16.75점으로 증가하고 비교집단은 15.88점으로 감소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1, 41) = 1.941]$ . 그리고 일체감과 상호영향의식은 실험집단은 14.50점에서 17로 증가하였고, 비교집단도 15.32점에서 16.38점으로 증가하여 두 집단의 점수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본 프로그램에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f(1, 43) = .882]$ .

〈표 17〉 공동체 의식 하위요인의 사전 사후 평균 및 표준편차

하위요인	집단 구분	실험집단(n=24)		비교집단(n=23)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친밀성과 소속감	사전	17.42	2.52	16.74	2.40
	사후	17.58	3.14	17.30	3.02
	사후점수 교정값	17.35		17.55	
조화와 단결	사전	15.75	2.72	16.57	1.80
	사후	16.87	3.19	16.35	2.35
	사후점수 교정값	17.09		16.11	
자발적 참여 및 의사표현	사전	15.63	3.72	16.13	2.58
	사후	16.62	3.14	15.96	2.38
	사후점수 교정값	16.75		15.88	
일체감과 상호영향 의식	사전	14.50	3.18	15.32	2.64
	사후	16.80	3.17	16.55	2.21
	사후점수 교정값	17		16.38	
자율성과 공공의식	사전	15.82	3.43	16.57	2.54
	사후	16.67	2.99	15.17	2.42
	사후점수 교정값	16.88		14.96	

〈표 18〉 공동체 의식 하위요인의 공분산 분석 결과

하위요인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친밀성과 소속감	공변인	135.61	1	135.61	20.39***
	집단	.478	1	.478	.072
	오차	292.619	44	6.650	
	전체	429.111	46		
조화와 단결	공변인	77.08	1	77.08	12.19**
	집단	10.94	1	10.94	1.730
	오차	278.17	44	6.32	
	전체	358.43	46		
자발적 참여 및 의사표현	공변인	179.14	1	179.14	42.58***
	집단	8.16	1	8.164	1.941
	오차	172.48	41	4.21	
	전체	357.16	43		
일체감과 상호영향 의식	공변인	95.75	1	95.75	17.28***
	집단	4.89	1	4.89	.882
	오차	238.27	43	5.54	
	전체	334.72	45		
자율성과 공공의식	공변인	137.58	1	137.58	30.73***
	집단	42.78	1	42.78	9.555***
	오차	197.00	44	4.48	
	전체	360.93	46		

\*p<.05 \*\*p<.01 \*\*\*p<.001

## 2. 집단별 친사회적 행동의 변화 정도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학생들의 사전 점수의 독립표본 t검증 결과 비동질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친사회적 행동의 사전점수를 통제하여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정확하기 파악하기 위해 공분산분석(ANCOVA)를 실시하였고 <표 19>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표 19> 친사회적 행동 사전 사후의 평균 및 표준편차

구분	실험집단(n=24)			비교집단(n=23)		
	사전점수	사후점수	사후점수 교정값	사전점 수	사후점수	사후점수 교정값
평균	99.27	113.17		111.22	110.96	
표준 편차	19.35	19.97	118.20	13.14	14.70	105.71

실험집단의 사전점수는 99.27점이고, 사후점수 교정값은 118.20으로 나타났다. 이제 반해 비교집단의 경우 사전점수는 111.22점으로 실험집단 보다 더욱 높았지만, 사후점수 교정값은 105.71로 실험집단보다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사전 점수를 공변인으로 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후점수 교정값의 차이가 더욱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공분산 분석 결과 두 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f(1, 44) = 15.02, p < .001$ ]. 따라서 본 연구의 나눔교육 프로그램이 친사회적 행동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내용은 <표 20>로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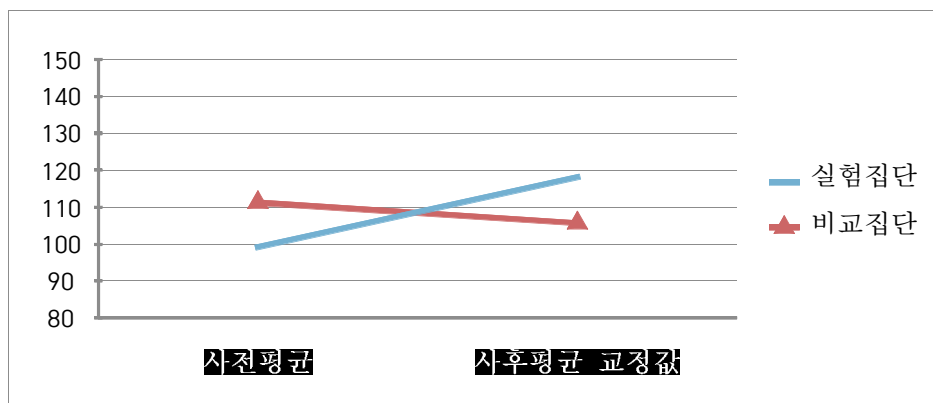
<표 20>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공분산 분석 결과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공변인	7643.10	1	7643.10	71.15***
집단	1613.84	1	1613.84	15.02***
오차	4726.70	44	107.42	
전체	13983.64	46		

\*p<.05 \*\*p<.01 \*\*\*p<.001

[그림2]와 같이, 실험집단의 친사회적 행동이 프로그램 전에는 비교집단보다 점수가 낮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프로그램 이후 실험집단의 경우 친사회적 행동 점수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키는데 본 연구에서 시행한 나눔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집단별 친사회적 행동의 사전 사후 평균 비교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요인의 변화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ANCOVA를 실시하였고, <표 21>, <표 22>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21> 친사회적 행동 하위요인의 사전 사후 평균 및 표준편차

하위요인		실험집단			비교집단		
		평균	표준편차	사후점수 교정값	평균	표준편차	사후점수 교정값
도움주기	사전	17.70	3.80	20.33	18.70	2.87	18.16
	사후	19.90	3.82		18.60	3.33	
친절하기	사전	22.79	4.36	25.21	24.91	2.94	22.87
	사후	24.30	4.83		23.83	3.45	
공감하기	사전	16.71	4.87	20.76	19.96	2.53	18.70
	사후	19.65	4.37		19.87	2.49	
나눠주기	사전	14.46	3.66	16.79	16.26	2.38	15.99
	사후	16.16	3.20		16.65	2.60	
보호하기	사전	14.93	3.50	16.76	16.57	2.83	15.67
	사후	16.23	3.08		16.21	2.86	
협동하기	사전	12.68	3.76	17.10	14.83	2.15	14.99
	사후	16.88	6.33		15.21	2.45	

구체적으로 각 하위요인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움주기영역은 실험집단의 사전점수 17.70에서 사후점수 교정값이 20.33으로 증가하였으나, 비교집단의 경우 18.70에서 18.16으로 감소하였다. 두 집단의 차이는 유의확률  $p=.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1, 44) = 14.012, p<.01$ ]. 친절하기 영역에서는 실험집단은 22.79점에서 25.21로 증가하였으나, 비교집단은 24.91에서 22.87로 감소하여 두 집단의 차이 값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f(1, 44) = 8.476, p<.01$ ]. 그리고 공감하기의 경우 사전점수는 16.71점으로 비교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지만, 사후점수 교정값은 20.76점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비교집단의 경우 19.96점에서 사후점수 교정값은 18.70점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두 집단의 차이가 더욱 커졌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검증되었다[ $f(1, 44) = 7.860, p<.01$ ].

하지만, 나눠주기, 보호하기, 협동하기의 영역의 경우 사후점수 교정값의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나눠주기 영역에서 실험집단의 점수는 14.46에서 16.79점으로 증가하였고, 비교집단은 16.26에서 15.99로 낮아졌다. 하지만 두 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44) =$

1.834]. 그리고 보호하기의 경우 실험집단은 14.93에서 16.76으로 증가하였고, 비교 집단은 16.57에서 15.67로 낮아져 두 집단의 차이가 나타났지만, 두 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44) = 2.864$ ]. 마지막으로 협동하기 영역의 경우, 실험집단은 12.68에서 17.10으로 비교집단은 14.83에서 14.99로 두 집단 모두 점수가 증가하였고, 공분산 분석 결과 두 집단의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f(1, 44) = 1.989$ ].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본 프로그램은 친사회적 하위요인 중 도움주기, 친절하기, 공감하기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 22〉 친사회적 행동 하위요인의 공분산 분석 결과

하위요인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도움주기	공변인	409.44	1	409.44	106.061***
	집단	54.09	1	54.09	14.012**
	오차	169.86.	44	3.86	
	전체	598.80	46		
친절하기	공변인	489.25	1	489.25	69.679***
	집단	59.51	1	59.51	8.476**
	오차	308.94	44	7.02	
	전체	800.80	46		
공감하기	공변인	339.20	1	339.20	63.099***
	집단	42.25	1	42.25	7.860**
	오차	23.26	44	5.38	
	전체	576.31	46		
나눠주기	공변인	221.60	1	22.60	59.332***
	집단	6.848	1	6.848	1.834
	오차	164.34	44	3.735	
	전체	388.80	46		
보호하기	공변인	196.97	1	196.97	43.158***
	집단	13.07	1	13.07	2.864
	오차	200.81	44	4.56	
	전체	397.78	46		
협동하기	공변인	19.06	1	19.06	.812
	집단	46.70	1	46.70	1.989
	오차	1033.25	44	23.48	
	전체	1084.80	46		

\* $p < .05$  \*\* $p < .01$  \*\*\* $p < .001$

## VI. 결론 및 논의

### A.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공동체 의식과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나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2014년 11월 24일 12월 2일까지 총 7일 동안 사전조사와 프로그램진행 그리고 사후조사의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초등학교 4학년 9개의 학급 중 나눔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사가 있는 2학급을 편의표집 하였다. 그리고 교사의 참여 의사에 따라 나눔교육을 통해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학급을 실험집단으로, 일반적인 교과과정으로 진행하는 학급을 비교집단으로 구성하였다. 2학급 모두 전수조사를 통해 실험집단 24명과 비교집단 23명으로 총 47명을 연구대상자로 모집하였다. 연구를 시작하기 전 연구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연구에 대한 설명과 설명문을 배포하고, 연구 참여 동의를 획득한 후 조성수(2007)에서 사용된 공동체 의식 척도와 이경은(2007)에서 사용된 친사회적 행동 척도를 설문지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총 5회기의 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프로그램 종료와 함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두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chi^2$ -test를 실시한 결과, 두 집단의 동질성이 검증되었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과 친사회적 행동의 동질성 검증을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로 검증한 결과, 공동체 의식은 두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친사회적 행동은 집단 간 비동질성이 확인되었다. 이에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한 공분산 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공동체 의식의 사전점수를 통제한 사후점수 교정값의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사후 점수의 차이를 비교해보았을 때 공동체 의식 점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NCOVA 분석 결과 집단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굿네이버스의 나눔교육 효과성을

검증한 김동일 외(2013)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맥락이다.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김동일 외(2008)의 연구에서 친사회성의 하위요인으로 공동체 의식이 증가한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효과인 시민의 책임감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자율성과 공공의식은 규칙을 지키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Perkin & Miller(1994)의 시민윤리와 사회적 책임감 증진이라는 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Service-learning의 효과로 지역사회 상호작용을 통해 투표, 정치적 활동 등의 참여가 증가하며,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는 결과를 제시한 Waterman(2014)과 유사한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공동체 의식 중 하위요인인 자율성과 공공의식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원인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나눔교육 프로그램이 기부, 자원봉사 활동의 차원의 나눔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 좀 더 근본적으로 공동체 내 개인의 책임감을 배우는 것으로, 본 연구의 기간이 제한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개인과 집단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며, 공동체 내 다른 구성원 또는 사회 전체에 관심을 가지고 개인이 스스로 소속감과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변화하기에 본 프로그램의 5회기가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학급 단위를 학생들의 공동체의 범위를 학교, 지역사회로 넓혀 가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장기간 동안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실제적인 나눔 활동을 통한 공동체의 변화를 경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같은 편의표집 하였고, 두 집단을 무작위로 할당하지 못하여 두 집단의 친사회적 행동의 사전점수에 차이가 유의한 수준으로 존재하였다. 이에 사전점수를 통제하고 사후점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나눔교육 프로그램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었다. 실험집단의 친사회적 행동 사전점수는 비교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프로그램 이후 비교집단의 점수 보다 증가하였고, 비교집단의 증

가폭보다 크게 상승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검증되었다. 이에 반해 비교집단의 점수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친사회적 행동을 향상시키는데 본 연구의 나눔교육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인 공동체 내 개인의 책임감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와 같은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전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공동체 전체가 모두 힘을 모아 학교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나눔을 경험하였다. 즉, 학급이라는 공동체 내에서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공동의 목적을 향해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본 프로그램의 내용인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개인과 공동체의 모두 유익이 되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나눔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선행연구(이경은, 2007; 강철희 외, 2007; 맹지나, 2010; 위지혜, 2012)의 결과와 그 맥을 같이한다. 특별히 본 연구의 대상과 같은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나눔교육을 실시한 이경은(2007)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실시한 Battistich et al.(1991)의 사회에 대한 이해와 협동 그리고 자원봉사 등의 내용을 가르친 CDP 결과 친사회적 행동이 증진되었다는 결과와 유사하다(이경은, 2007에서 재인용). 뿐만 아니라 국내 비영리기관에서 실시한 효과성 검증 연구(김동일 외, 2013)와도 친사회적 행동이 증진되었다는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요인 중 도움주기, 친절하기, 공감하기 영역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나눠주기, 보호하기, 협동하기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본 프로그램의 내용 중 학생들은 자신의 공동체 내에서 함께 참여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친절을 베푸는 것이 개인과 학급 모두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은 나와 너를 하나로 인식하여 공동체 전체 목적을 위하여 함께 가는 구성원에게 도

움을 제공하는 것은 결국 나를 돕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배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나눠주기, 보호하기, 협력하기 등의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이는 본 프로그램의 내용 중 실질적으로 물건을 나누거나 위협이나 힘든 일에 있는 상황에 도움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지 못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의 나눔교육 과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협력하기의 경우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학생들은 의견 충돌 및 갈등을 겪었고, 그로 인해 협력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체감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좀 더 장기적인 과정으로 갈등을 해결하여 실제 변화가 어떤지 경험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아동들의 공동체 의식과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나눔교육 프로그램에 본 프로그램의 구성과 같이 전체 공동체의 목표를 함께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움주고 받기, 협력과 나눔이 개인들의 책임감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실제로 학생들이 나눔에 대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구성하였고, 친사회적 행동이 증진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 나눔의 방법을 찾고 준비하고 실천하면서 나눔에 대한 필요성과 타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전체 공동체 내에서의 규칙을 준수하는 행동에 대해 습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앞으로 나눔교육의 과정이 교사나 강사에 의한 강의가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 내에서의 역할로서의 나눔을 실천해볼 수 있는 체험이 되어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 B. 연구의 함의

자본주의 체제하에 끊임없이 계속되는 경쟁과 그 속에서의 탈진 그리고 경쟁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무한 이기주의가 만연한 사회에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다. 문제는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인 왕따, 학교폭력, 자살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현실에 대처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제라도 학교에서 배려, 협력, 공동체에 대한 의미를 다시 배우고 나눔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알려 주면서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시키려는 새로운 교육 접근이 해를 거듭할수록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 복지부의 정부영역과 다양한 비영리기관 그리고 기업까지 나눔의 가치관과 행동을 전달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나눔교육 내용과 방법의 실태를 살펴보았을 때, 각 개인이 속한 실제 사회에 대한 참여가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각 개인의 일상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습관화를 위해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가진 교사와 부모들에 대한 연계의 부족을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나눔교육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나눔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미국의 나눔교육 프로그램의 방법인 SSPP의 내용을 참고하여 국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였다. 그리고 실제 국내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공동체 의식과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실천적 함의를 가진다.

먼저, 미국 뉴욕의 모든 학교에서 실제로 아이들에게 적용하고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된 모델을 한국에 처음 도입하여 시행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국내 나눔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별히, 본 연구의 모델 프로그램이 기반으로 한 Service-Learning의 핵심적인 요소인 교과목 연계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였다. 본 프로그램과 함께 연계한 교과목의 내용은 초등학교 사회교과목 내용 중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이라는 내용이었다. 4학년 2학기 사회의 3단원의 내용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대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한 시민으로서의 책임에 대해 배우는 내용으로 나눔교육 프로그램과 접목하여 진행하기에 적합한 내용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교과목과 연계하여 나눔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Service-Learning을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교사들이 학급에서 실제로 진행할 수 있는 나눔교육 프로그램의 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실천적 함의를 가진다. 앞으로 본 연구가 나눔 기본법에 교사가 교과내용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구조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국내 나눔교육 프로그램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던 부모에 대한 교육이 본 프로그램에서 가정통신문 형태로 구성되어 가정연계 방안으로 시행되었다. 학교 교실에서 진행된 의미가 가정공동체로 이어져 교사와 부모가 일관성 있게 나눔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아동의 일상생활 가운데 부모님의 지속적인 지도를 받아 가정에서도 나눔을 습관화 할 수 있도록 발전된 형태의 중요한 연결지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나눔에 대한 언급보다 실제로 나눔을 기획하고 경험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공동체와 나눔을 깨닫도록 하는데 실천적 함의를 가진다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접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회기의 내용은 경쟁과 협력을 통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가 무엇이며 공동체 내에서 개인들의 힘이 모였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게임과 토론을 통해서 배웠다. 경쟁 게임을 통해 이기는 사람은 1명이지만, 협력 게임을 통해 이기는 사람은 모두라는 것을 게임을 통해 습득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은 서로 이기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가 협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무엇이 있는지 배웠다. 즉, 1회기에는 자신이 속한 학교, 가정에서 나눔을 주고받는 것이 모두의 유익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2회기에서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미래를 상상하면서 현재의 문제를 파악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 때, 주제 선정과 해결 방안을 위한 브레인스토밍으로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였고 모두가 함께 가는 프로젝트인 만큼 경쟁이 아닌 서로를 도우면서 더욱 많은 의견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여러 가지 의견(학교 주변 쓰레기 문제, 불법 주차, 신호위반, 교통안전, 위험한 사람들의 빈번한 출입, 학교 주변 과속 차량 등)들 가운데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공감하면서 적합한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학생들은 공동체인 학교 주변의 문제를 알게 되어 나눔을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실제로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방법을 배웠을 것이다.

3회기에는 지난 회기에 선정된 주제인 학교 주변의 지저분하고 위험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아이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하고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조사하면서 계획서를 작성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초등학생이지만,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학교 주변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각자가 할 수 있는 활동을 현장조사, 보고서 작성, 편지쓰기, 그림그리기 등을 활용하여 공동체의 유익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통해 공동체 내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임을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4회기에 학교 주변의 위험한 지역과 더러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주제로 현장조사, 편지쓰기, 포스터 제작하기, 그리고 보고서 작성 등의 팀을 구성하고 각 조의 업무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고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학생들 간의 갈등을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지 배울수 있었다. 그리고 의사를 결정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도움주기, 친절하기, 공감하기를 발달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5회기에는 모든 과정을 마치면서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각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친구들과의 갈등을 해결하면서 배운 점들을 나누었다. 그리고 나눔 수업을 마무리 하면서 자신이 느낀 나눔이 무엇

이고 공동체에 대해 자신에 느낀 점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때, 자신들이 익숙한 경쟁이 아닌 협력을 경험하는 일이 어렵지만 함께 하는 기쁨을 느꼈고 앞으로 프로젝트의 활동을 계속 이어갈 의지를 보였다.

모든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의 자신의 책임에 대해 배우는 것을 단순히 교과서에서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로 다른 학생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공감하면서 나와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배우고, 서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더 큰 공동체의 문제를 위해 실태조사와 편지쓰기 등의 활동을 하면서 나눔이라는 것이 큰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책임감 있게 실천하는 것임을 배울 수 있었다. 나아가 앞으로 나눔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에 관심과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의 역량을 개발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나눔교육 프로그램이 좀 더 학생 주도적으로 구성될 필요성을 제기하는 기초자료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나눔교육이 교실 밖 지역사회로 나가 실제 문제에 참여하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C. 연구의 제한점 및 차후연구에 대한 제언

본 연구에서 시행된 나눔교육 프로그램은 5회기의 내용으로 학기 단위로 시행되는 모델 프로그램의 내용 중 일부부만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단기적으로 시행하기에는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본 프로그램은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기 때문에 모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할 수 없는 제한점이 존재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유의미하게 차이를 나타나지 않은 공동체 의식과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요인의 경우 본 프로그램의 내용이 전달되어 실질적인 변화를 도출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다. 이러한 이유로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장기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여 나눔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본 프로그램의 모델 프로그램과 같이 전체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같이 1학기를 단위로 주 1회씩 시행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본 연구는 비동일집단 실험설계 방법으로 연구를 설계하고, 편의표집 방법으로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의 한계를 지닌다. 그리고 친사회적 행동의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또한, 공동체 의식과 친사회적 행동 척도의 하위요인 중 신뢰도 .70에 미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에 차후 연구에서는 무작위 할당을 통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고 좀 더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정확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마련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교사 그리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효과성을 모두 검증했다고 보기 어렵다. 추후 연구에서는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연계에 대한 부모, 교사, 지역사회의 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어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철희, 김미옥, 이종은, 이경은 (2007). 나눔교육을 통한 아동의 변화연구: Multiple Convergence Model. *한국사회복지학*, 59(4), 5-34.
- 고정리 (2013). 유아 공동체 의식 함양 활동 구성 및 적용 효과.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유아교육전공. 박사학위논문.
- 고정리 (2014). 유아 공동체 의식, 정서지능,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분석. *육아지원 연구*, 9(1), 97-125.
- 교육과학기술부 (2009).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III).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권선희 (2006). 나눔교육이 아동의 친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동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08). 나눔교육 지도지침 및 교재 개발.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김동일, 김명찬, 이예슬, 오정수,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 굿네이버스 사회개발사업부. (2013). 굿네이버스 나눔교육 효과성 연구. 서울: 굿네이버스.
- 김미숙, 조준범. (2014). 시설아동의 대인관계형성을 위한 나눔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한국아동복지학*, 45, 39-67.
- 김선숙, 안재진 (201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3(1), 339-363.
- 김수연 (1995). 아동이 지각한 가정환경 과정변인, 사회적 유능성 및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분석. 효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연정, 김미희, 박태근, (2012). 서울시민의 나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치행정학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3, 105-135.
- 김원겸 (2004).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중학교 사회과 교육의 수준별 전개. *교육연구논총*, 25(2), 33-57.
- 나눔국민운동본부 (2013, 미간행). 2013 국내 나눔교육 실태. 서울: 나눔국민운동본부.
- 맹지나 (2010). 그림책을 활용한 나눔교육 활동이 유아의 나눔에 대한 인식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가나 (2009). 청소년 참여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16(10), 273-306.
- 박재숙 (2010). 학교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자원봉사활동, 자아존중감, 공동체 의식의 관

- 계. *청소년학 연구*, 17(4), 157-182.
- 박지원 (2009). 태권도를 배우는 초등학교 수련생의 리더십 생활기술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현선 (2005). Philanthropy Education to Children of NGOs to Promote Civil Society : Case Studies and Implications.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지은, 최혜원, 서은국, 구재선 (2013). 행복한 청소년은 좋은 시민이 되는가? 긍정적 서와 친사회적 가치관과 행동. *한국심리학회*, 27(3), 1-21.
- 아름다운재단 (2005). 나눔교육 교사연수 자료집. 서울: 아름다운재단.
- 아름다운재단 (2009). 교사를 위한 나눔교육 길라잡이. 서울: 아름다운재단.
- 오지원 (2013). 학급 공동체 의식이 집단 따돌림 관여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남희, 이연섭, 정진경, 정병호, 이기범 (2001). 21세기 한국사회의 공동체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공동체교육: 이론과 실천의 장기 참여관찰 연구 II. 서울: 한국학술진흥재단.
- 이경은 (2007).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향상을 위한 나눔교육 프로그램의 적용 및 효과성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은, 강철희 (2007). 아동을 대상으로 한 나눔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변화 분석. *한국비영리연구*, 6(1), 77-109.
- 이종은 (2009). 나눔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연구: concept mapping을 활용한 모델개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위지혜 (2014). 나눔 교육 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정실 (2013). 아름다운 나눔수업. 서울: 착한책가게.
- 정옥분 (2011).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조성수 (2007). 초등학생의 공동체 의식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희숙, 최영미 (2004).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발달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논총*, 13(2), 37-56.
- 최서연 (2012). 초등학생을 위한 나눔교육 프로그램 국제 비교.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순 (2012). 시민교육을 위한 Service-learning 활용방안. *사회과학연구*, 19(2),

71-82.

- 한대동, 오경희 (2013). 초등학교에서의 공동체적 수업실천과 공동체 의식이 학교폭력 자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23(4), 207-235.
- 한은영, 김미강 (2013). :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3, 95-124.
- Aristotle, , 천병희, & 千丙熙, . (2009). *정치학*. 고양: 숲.
- Agard, K. A. (2002). Learning to give: Teaching philanthropy K - 12. *New Directions for Philanthropic Fundraising*, 2002(36), 37-54.
- Bar-Tal, D. (1976). Prosocial behavior: Theory and research.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 Batson, C. D., & Powell, A. A. (2003). *Altruism and prosocial behavior*. Handbook of psychology.
- Bekkers, R. (2005, November). Charity begins at home: How socialization experiences influence giving and volunteering. *In 34rd Annual ARNOVA-Conference, Washington, DC, USA*.
- Bentley, R. J., & Nissan, L. G. (1996). *The roots of giving and serving*.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Center on Philanthropy.
- Bierhoff, H. W. (1983). How helpful is the human being? *Bild der Wissenshcft*, 20(12), 118-126.
- Bjorhovde, P. O. (2002). Teaching philanthropy to children: Why, how, and what. *New Directions for Philanthropic Fundraising*, 2002(36), 7-20.
- Bremner, R. H. (1996). *Giving: Charity and philanthropy in history*. Transaction Publishers.
- Church, R. L., Floden, R. E. & Zimmerman, D. L. (2005). *Learning to Give Evaluation Report 2004-2005*. MI: Michigan state University.
- Conrad, D., & Hedin, D. (1989). *High School Community Service: A Review of Research and Programs*. WI: National Center on effective Secondary Schools, Wisconsin Center for Education Research,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Eisenberg, N. (1982).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NY: Academic Press.
- Eisenberg, N., & Mussen, P. H. (1989). *The Roots of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yler, J., & Giles Jr, D. E. (1999). *Where's the Learning in Service-Learning?* Jossey-Bass Higher and Adult Education Series. Jossey-Bass, Inc., 350 Sansome St., San Francisco, CA 94104.
- Frank, L. M. (1994). *Student service and philanthropy project: A resource guide for establishing a student-run foundation*. New York: Surdna Foundation and New York City Board of Education Division of High Schools.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372145) Retrieved February 28, 2009 from ERIC database.
- Furman, N. N. (2011). *The effects of a treatment curriculum on the learning transfer of prosocial behavior in adventure education*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Utah).
- Floden, E. R. (2010). *The LEAGUE Evaluation Report*. MI: Michigan State University.
- Honig, A. S., & Pollack, B. (1990). Effects of a brief intervention program to promote prosocial behaviors in young children.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6), 438-444.
- Hawley, P. H. (2014). Evolution, Prosocial Behavior, and Altruism. *Prosocial Development: A Multidimensional Approach*, 43.
- Janoski, T., & Wilson, J. (1995). Pathways to voluntarism: Family socialization and status transmission models. *Social Forces*, 74(1), 271-292.
- Kaye, C. B. (2010). *The Complete Guide to Service Learning*. Free spirit publishing.
- Kurzeka, A. (2009). *THE BENEFITS OF YOUTH PHILANTHROPY PROGRAMS IN SAN FRANCISCO BAY AREA JEWISH DAY SCHOOLS* (Doctoral dissertation, Notre Dame de Namur University).
- League Michican (2014). *Service Learning Academy*. Fisher Training. MI: Michigan Nonprogit Association.
-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2013). *An Evaluation of generationOn Schools and Youth Philanthropy in Indiana*. IN: Indiana University.
- McDonald, D., & Olberding, J. C. (2012). Learning by giving: A quasi-experimental study of student philanthropy in criminal justice educatio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Education*, 23(3), 307-335.

- McLellan, J. A., & Youniss, J. (2003). Two system of youth service: Determinants of voluntary and required youth community servi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2(1), 47-58.
- McMilan, D. W., & Chavis, D. M.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1), 6-23.
- Moely, B. E., McFarland, M., Miron, D., Mercer, S., & Ilustre, V. (2002). Changes in college students' attitudes and intentions for civic involvement as a function of service-learning experiences. *Michigan Journal of Community Service Learning*, 9, 18-26.
- Olberding, J. C. (2012). Does student philanthropy work? A study of long-term effects of the "Learning by Giving" approach. *Innovative Higher Education*, 37(2), 71-87.
- Ottoni-Wilhelm, M., Estell, D. B., & Perdue, N. H. (2014). Role-modeling and conversations about giving in the socialization of adolescent charitable giving and volunteering. *Journal of adolescence*, 37(1), 53-66.
- Payton, R. L., & Moody, M. P. (2008). *Understanding philanthropy: Its meaning and mission*. Indiana University Press.
- Perkin, D. F. & Miller, J. (1994). Why Community Service and Service Learning?: Providing rationale and research, *Democracy & Education*. 11-16.
- Plato, Slings, S. R., & 천병희. (2013). 국가. 고양: 숲.
- RMC Research Corporation. (2009). *K-12 Service-Learning Project Planning Toolkit*. Scotts Valley, CA: National Service-Learning Clearinghouse
- Rubin, A., Babbie, E. R., 김기덕, & 金基德, . (2008). *사회복지조사방법론*. 서울: 센케이 지리닝코리아.
- Ryan, K., & Bohlin, K. E. (1998). *Building Character in Schools: Practical Ways To Bring Moral Instruction to Life*. Jossey-Bass Inc., Publishers, 350 Sansome St.,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Simons, L., & Cleary, B. (2006). The influence of service learning on students' personal and social development. *College Teaching*, 54(4), 307-319.
- Spaide, D. (1995). *Teaching your kids to care: How to discover and develop the spirit of charity in your children*. New York: Carol Publishing Group.



- Waterman, A. S. (Ed.). (2014). *Service-learning: Applications from the research*.  
Routledge.
- Whitley, M. A. (2014). A Draft Conceptual Framework of Relevant Theories to  
Inform Future Rigorous Research on Student Service-Learning Outcomes.  
*Michigan Journal of Community Service Learning*, 20(2), 19-40.
- 구세군 <http://www.salvationarmy.or.kr/>
- 굿네이버스 <http://www.goodneighbors.kr/main.asp>
- 기아대책 <http://www.kfhi.or.kr>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http://www.chest.or.kr/index.jsp>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http://www.childfund.or.kr/main.do>
- 월드비전 <http://www.worldvision.or.kr/>
- 아름다운가게 <http://www.beautifulstore.org/>
- 아름다운재단 <http://www.nanumedu.org/>
- 유네세프한국위원회 <http://www.unicef.or.kr/>
- Learningtogive <http://www.learningtogive.org/>
- League <http://www.mnaonline.org/league.aspx>
- generationOn <http://www.generationon.org/>

## <부록 1> 프로그램 회기별 세부사항

통합형 나눔교육 프로그램 회기별 교안 - 1회기	
목표	공동체 내 협력과 나눔의 필요성을 깨닫는다. 공동체의 의미와 개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배운다.
SSPP 모델 단계	SSPP Unit. 1 and Unit 3. Lesson. 1. Exploring Reasons for Community Service
단 계	활동내용
활동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 전달 공동체 게임을 경쟁 방식과 협력 방식으로 진행한다.</li> <li>에너지 전달 게임의 의미를 설명해준다.</li> <li>경쟁 방식으로 했을 때와 협력해서 했을 때 어떤 점이 차이가 나는지 각 개인별로 느낀점을 표현해본다(A4용지에 단어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나눔, 배려, 협력, 공유, 상호의존, 돌봄, 믿음, 신뢰와 연결시켜 본다)</li> <li>경쟁과 협력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느낀점을 발표해본다.</li> </ul>
활동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명씩 6조를 나누어 각 개인이 속한 공동체가 무엇이 있는지 종류대로 적어보도록 한다.</li> <li>공동체 내에서 각 개인의 역할과 협력, 나눔이 왜 필요한지에 적어볼 수 있도록 한다.</li> <li>분단별로 작성한 내용 바탕으로 포스터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다.</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자신이 속한 공동체는 무엇이 있는가?”  “공동체의 의미는 무엇인가?”  “공동체 속에서 개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공동체 내에서 나눔과 협력이 필요한가?”  “나눔은 어디서 어떻게 필요한가?”</p> </div>
마 무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단별로 작성한 내용을 발표하고 난 후 전체의 의견을 모아 공동체와 개인의 역할에 대하여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진다.</li> </ul>
가정-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늘 학습한 내용에 대한 요약서와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의미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한다.</li> </ul>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ioe, S. E. (n.d.). Individuals and Their Communities: Philanthropy Lesson (3rd). Retrieved from <a href="http://learningtogive.org/lessons/unit274/lesson3.html#lesson">http://learningtogive.org/lessons/unit274/lesson3.html#lesson</a></li> </ul>

통합형 나눔교육 프로그램 회기별 교안 - 2회기	
목표	자신의 공동체의 문제를 발견하고 실행방안을 모색해본다.
SSPP 모델 단계	Unit. 3. Lesson 2. Identifying Problems in the Neighborhood Lesson 4. Choosing Good Community Service Project.
단 계	활동내용
도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난 회기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여 공동체 의미와 개인의 역할 그리고 나눔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뒤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각 개인이 관심을 가져야 함을 다시 강조한다.</li> </ul>
활동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상적 사회: 자신이 속한 학급,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가 어떻게 변화되면 좋을지 작성해본다. 그리고 앞으로 이상적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바뀌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한다.</li> <li>작성된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 뒤, 유사한 주제별로 분단을 만들어 본다.</li> </ul>
활동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단별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제를 선정하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한다. (인터넷, 신문기사 등 참고할 수 있음)</li> <li>모듬별 활동을 마친 후 작성된 내용을 발표하고 칠판에 작성한 뒤 투표를 통해 학급 전체가 진행한 주제를 선정한다.</li> <li>주제를 선정된 뒤 진행할 주제에 필요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해올 수 있도록 숙제를 준다.</li> </ul>
마 무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에 대하여 격려하고 주제를 선정하고 계획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통과 협력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회기를 마친다.</li> </ul>
가정-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에서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은 무엇이며 이를 위하여 바뀌어야 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토론 및 계획서를 작성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li> </ul>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eague Michican. (2014). Service Learning Academy. Fisher Training. MI: Michigan Nonprogit Association.</li> <li>Martz, M. (n.d.). We are community-past, present and future. Retrieved from <a href="http://learningtogive.org/lessons/unit46/lesson3.html">http://learningtogive.org/lessons/unit46/lesson3.html</a></li> </ul>

통합형 나눔교육 프로그램 회기별 교안 - 3회기	
목표	선정된 주제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분석하고 계획서를 작성한다.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갈등해결방법 및 의사결정과정을 학습한다.
SSPP 모델 단계	Unit3. Lesson. 5. Designing a Specific Project
단 계	활동내용
활동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해온 자료를 발표해보는 것과 함께, 다른 학생들의 계획서를 샘플로 제시하여 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li> <li>▪ 목적(왜 해야 하는지?) - 목표(무엇을 위해 해야 하는지?) - 대상(누구를 위하여 할 것인가? - 필요자원(필요한 물품 및 정보는 무엇인지?) - 활동(하고자 하는 활동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 예상되는 기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토론한다.</li> </ul>
활동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론 이후 질문 사항에 대하여 조별로 실제 계획서를 작성해본다. (목적 및 목표, 활동, 필요자원 및 예산)</li> <li>▪ 각 분단별로 인터넷 검색과 관련 기관 혹은 담당자의 전화 문의를 진행한다(주제와 관련한 자원 리스트를 작성하여 전화 문의 시 교사의 도움을 받는다).</li> <li>▪ 각 조에서 작성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전체적인 계획을 정리한다.</li> <li>▪ 모든 조의 역할을 골고루 배정할 수 있는 전체 계획을 완성한다.</li> </ul>
마 무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늘 활동 중 학급 전체 모두가 참여하여 하나의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각 개인의 역할이 모여 큰 힘을 이룬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의사 결정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알려준다.</li> </ul>
가정-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에서 발견된 문제를 실제로 행동을 이어질 수 있는 계획을 작성해보도록 지도한다.</li> <li>▪ 학생들이 실제로 활동을 하는 당일 참여 가능한 학부모들을 모집한다.</li> </ul>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aye (2010). The complete Guide to Service Learning. Free spirit Publishing.</li> </ul>

통합형 나눔교육 프로그램 회기별 교안 -4회기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들이 계획한 활동을 실제 참여하면서 나눔 활동의 의미를 느끼고 또래간의 협력을 경험한다.</li> <li>▪ 활동에 대한 소감을 작성하고 발표하면서 공동체와 나눔의 의미를 되새긴다.</li> </ul>
SSPP 모델 단계	Unit 4 and Unit. 5. Reflection
단 계	활동내용
도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에 필요한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안전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점검한다.</li> </ul>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된 활동을 시행한다.</li> <li>▪ 교사와 부모들과 함께 계획된 활동을 하면서 또래간의 협력과 과정 중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소통하면서 풀어나가는 능력을 배운다.</li> <li>▪ 계획된 활동을 시행한 후 자신들의 소감문을 작성하고 모둠별로 소감문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li> </ul>
마 무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두가 협력하여 과정을 잘 마칠 수 있었음을 알려주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노력한 부분을 칭찬한다. 그리고 오늘 경험 한 것들을 잘 기록하여 이를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li> </ul>
가정-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성한 소감문을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앞으로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해보고 싶은 내용을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한다.</li> </ul>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aye (2010). The complete Guide to Service Learning. Free spirit Publishing.</li> </ul>

통합형 나눔교육 프로그램 회기별 교안 - 5회기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들의 활동 전 과정을 평가하면서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반성해보고 개선사항을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li> <li>▪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선사항에 대해 나누어보고 나눔 활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li> <li>▪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한 과정을 담은 사진과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공동체와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며 학급 전체가 참여하여 나눔과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li> </ul>
SSPP 모델 단계	Unit. 5. Reflection
단 계	활동내용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 전체가 각 과정을 다시 떠올려보면서 잘된 점과 아쉬운 점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역할분배, 시간, 기획서 작성, 정보검색 등의 목록을 제시한다)</li> <li>▪ 동영상과 사진을 참고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떠올려보고 왜 가장 의미가 있는지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li> <li>▪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나눔, 공동체에 대하여 새로운 단어를 포스트일에 작성하여 전체 학급이 정의하는 나눔 포스터를 제작한다.</li> </ul>
마 무 리	모든 학생들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었고,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된 프로젝트를 알려준다.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서 진행하여 자신의 공동체에 더욱 적극적인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가정-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들이 참여한 프로그램의 사진과 동영상을 메일로 전송하고 소감문을 볼 수 있도록 전달한다.</li> <li>▪ 실제로 가정별로 시행해볼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한 소개와 정보를 제공한다.</li> </ul>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aye. (2010). The complete Guide to Service Learning. Free spirit Publishing.</li> </ul>

## <부록 2> 설문지

### 초등학생 공동체 의식과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설문지

ID				
----	--	--	--	--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는 박 신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평소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보고자 합니다.  
아래의 설문지는 맞고 틀리는 정답이 없으며, 여러분의 평소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답변은 연구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으며 교과 성적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응답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지켜집니다.  
여러분들의 솔직한 답변은 저의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부디 여러분의 평소 생각을 솔직하게 대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4학기 박신영  
 지도교수 전 종설

\* 아래의 문장을 잘 읽고, 여러분들의 생각, 태도 그리고 행동에 가깝다고 판단되는 것에 표시(v)하여 주시면 됩니다.

번호	설문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나는 길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줄 것이다					
2	나는 길을 묻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3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행동 할 것이다					
4	나는 불우 이웃을 돕기 위해 돈을 낼 것이다					
5	나는 낯선 사람이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는 것을 보았을 경우 들어줄 것이다					
6	나는 버스나 엘리베이터를 탈 때, 다른 사람이 있으면 양보하거나 문을 열어줄 것이다					
7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을 때(차를 타거나 수돗가, 화장실에서 등) 급한 사람이 있으면 양보할 것이다					
8	나는 나보다 공부를 못하는 친구의 공부나 숙제를 도와줄 것이다					
9	나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할 것이다					
10	나는 별로 친하지 않는 친구에게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물건(책 혹은 학용품 등)을 빌려줄 것이다					
11	나는 물건을 살 때, 거스름돈을 더 받았을 경우 주인이나 점원에게 나머지를 돌려줄 것이다					
12	나는 보답을 바라지 않고 친구의 집이나 이웃에 사는 어린이들 돌보아줄 것이다					
13	나는 장애인이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분들을 도와드릴 것이다					
14	나는 가게에서 주인이나 점원이 가격을 잘 모르고 더 싸게 말했을 때, 그것을 고쳐 줄 것이다					
15	나는 집이나 학교에서 힘들고 하기 싫은 일을 스스로 할 것이다					
16	나는 반 친구가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					



	있을 때 그 아이에게 내 준비물을 나누어주거나 같이 쓸 것이다					
17	나는 다른 보상을 바라지 않고 친구를 도와서 재미없거나 어려운 일(청소, 심부름)을 할 것이다					
18	나는 매우 화가 난 친구를 달래줄 것이다					
19	나눠 먹을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 나누어 먹을 것이다					
20	나는 개인의 이익보다 우리 반이나 학교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1	나는 내 친구가 상이나 칭찬을 받았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줄 것이다					
22	나는 일이 밀려 있을지라도 친구가 도움을 요청하면 잘 도와줄 것이다					
23	나는 선생님이나 반 친구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24	나는 반 친구들에게 욕을 하거나 별명을 부르고 못살게 구는 친구들이 있으면 타이르거나 못하게 할 것이다					
25	나는 친구가 아플 때 문병을 가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위로해 줄 것이다					
26	나는 시장이나 길에서 몸이 불편한 사람이 물건을 팔고 있는 것을 보면 엄마에게 그 사람의 물건을 사자고 할 것이다					
27	나는 친구나 다른 반 친구가 몸이 아플 때 양호실에 데려가거나 가방을 들어줄 것이다					
28	나는 친구가 별로 없는 아이와도 같이 놀아줄 것이다.					

\* 아래의 문장을 잘 읽고, 여러분들의 생각, 태도 그리고 행동에 가깝다고 판단되는 것에 표시(v)하여 주시면 됩니다.

번호	설문문항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보통 이다	그렇 지않 다	매우 그렇 지 않다
1	나는 우리 반에 속해 있다고 느낀다					
2	나는 우리 반 내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 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3	나는 학급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낸다					
4	나는 학급의 친구들과 서로 도우며 생활한다					
5	우리 반에서 결정한 것을 존중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6	나의 행동이 학급 규칙에 벗어나면, 나는 기꺼이 나의 행동을 고칠 것이다					
7	우리 반 친구들 모두가 힘을 합쳐야 우리 반을 발전시킬 수 있다					
8	나는 학급에 피해를 주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9	나는 학급 모임활동에 참석한다.					
10	학급회의에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11	나는 학급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12	나는 학급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한다					
13	나는 우리 반 친구들이 잘 하면 마치 내가 잘한 것처럼 기쁘다					
14	우리 반이 발전하면 그 만큼 나에게도 이익이 된다					

15	나는 학급의 친구들과 협동하여 일을 한다					
16	나는 학급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17	나는 학급의 규칙을 남이 보지 않아도 스스로 지킨다					
18	나도 우리 반의 주인이 될 수 있다					
19	나는 학급의 물건을 내 것처럼 소중히 다룬다					
20	나는 학급에서 맡은 역할은 책임 있게 완수 한다					

\* 다음은 질문에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v)하여 주시면 됩니다.

1. 성별	① 남	② 여
2. 나이	( )세	
3. 학년	( )학년	
4. 종교	①기독교 ②불교 ③천주교 ④이슬람 ⑤힌두교 ⑥무교 ⑦기타( )	
5. 형제 수	( )명 *본인제외	
6. 주관적 생활 수준	①상 ②중 ③하	
7. 부모의 맞벌이 여부	①예 ②아니오	
8. 부의 학력	①초졸 ②중졸 ③고졸 ④대졸 ⑤대학원 이상	
9. 모의 학력	①초졸 ②중졸 ③고졸 ④대졸 ⑤대학원 이상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ABSTRACT

A study on evaluating the impact of philanthropy education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nse of community and prosocial behaviors.

Park, Shinyoung  
Department of Social Work  
The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philanthropy education program on the student's sense of community and prosocial behaviors by analyzing pretest and posttest data for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a philanthropy education program(Experimental group), relative to students who did not participate(Comparison group).

The five session program of this study was based on Student Service and Philanthropy Project (SSPP) that was regarded successful model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nder the 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 the subjects are 24 elementary school students as an experimental group and 23 students as a comparison group.

These findings can be concluded as followings.

Even though the score of sense of community in the experimental group was increased, the change of scores in experimental group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it in comparison group. However, the prosocial behaviors score in experimental group is significantly increased, indicating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is philanthropy education program has a significant effect on prosocial behaviors development.